BEING ART
장애인예술 매거진

아름다운 영토

美지

2023 봄호 VOL. 27

한라산국립공원2_김환 作

LS, 세계의 미래를 스마트에너지로 관리합니다

LS의 스마트에너지솔루션이
친환경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으로 세계의 미래를 밝힙니다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 스마트 공장 • 빌딩 • 홈 • 캠퍼스 시스템

FUTURING SMART ENERGY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주)LS | LS전선 | LS산전 | LS-Nikko동제련 | LS엠트론 | LS글로벌 | LS아이앤디 | LS빌드윈 | LS메탈 | LS사우타 | LS메카피온 | LS오토모티브 | LS네트웍스

아름다운 영토

美지

2023 봄호 VOL. 27

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E美지
아름다운 영토

2023 봄호 VOL. 27

발행인 및 편집인 | 방귀희
제호 및 단체로고 | 석창우
발행처 |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발행일 | 2023년 3월 30일
등록번호 | 금천-바00028(2016. 07. 02.)
주소 |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전화 | 02-861-8848 **팩스** | 02-861-8849
이메일 | klah1990@daum.net
홈페이지 | www.emiji.net

편집자문위원
김인설(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김희정(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교수)
나종민(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박관후(영동유원대학교 문화복지융합학과 초빙교수)
박현희(성산효대학원대학교 HYO예술융합학과 교수)
윤재웅(동국대학교 총장)

편집위원
강남국(문학/활짝웃는독서회 회장, 수필가)
강원래(방송/꿍따리유랑단 단장)
김미경(미술/서양화가)
김용성(영미문학/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용우(무용/휠체어 무용가)
석창우(미술/수묵크로키)
이영식(음악/민요)
이훈(음악/피아니스트)
정승재(법학/장안대학교 행정실무학과 교수, 소설가)

편집운영위원
김헌식(대중문화/문화평론가)
김현일(미술/디스에이블드 대표)
이성모(연극/LSM 대표)
정은현(음악/TOOL MUSIC 대표)

편집부
차희정(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정현우(방송작가, 시인)
김세령(본 협회 실장)

최부암(PHOTO)

장애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와 MOU로 『E美지』 콘텐츠는 에이블뉴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가: 12,000원/1년 정기구독료 40,000원/단체 1년 구독료 100,000원(3권)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ISSN 2508-4984

* 『E美지』 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한 장애인문학 진흥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아름다운 영토

E美지

2023 봄호 VOL. 27

아름다운 영토

美지

2023 봄호 VOL. 27

CONTENTS

010

020

038

045

첫 번째 바람이 분다

010 **초대석**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 확고히 밝힌 윤석열 대통령–걱정하지 마십쇼!
018 **특집** 장애예술인, 하하놀이 선생님 되다

022 **4월의 사과** 새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025 **스터디** 2022장애예술인수첩 내용 분석 결과
030 **스페셜** 기술 기반의 작품 변화와 장애인미술의 접근성
041 **별에서 온 詩** 공존의 의미 _ 이선관
The Meaning of Coexistence _ Lee Seon-gwan

043 **중계석**
044 행사 | 2023 신년 인사회 & 음악회에 장애예술인 초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에 장예총 배은주 대표 위촉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인예술 3대 사업 발표 성료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DCL오케스트라의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044

045

046

한라산국립공원2 /프레임7(표지) **김환**(뇌병변장애)

두 번째 반하다

054 문학
최윤정 작가는 비상 중

066 미술
異常과 理想 사이의 작가 김환

088 음악
재즈피아니스트 정명수의 이유 있는 도전

098 대중예술
연출자 임지윤의 반전 매력

108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6 사랑을 받는 방법

114 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손병걸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_ 고연수

120 방정환과 놀다 산길에서 논 조민지 작가

Photo by **최부암** 〈미선나무 꽃〉, 〈조팝나무 새싹〉, 〈청매실꽃〉

세 번째 변화하다

124 **A_컬쳐** 장애인만 의존적 존재인가? _ 김헌식
130 **김뜰 웹드라마** 딱 나 같은 딸 최종화

139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139 **한국장애인사** 비운의 왕 선조
146 **세계장애인물사**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외모 열등감

148 **피플** 자폐성 장애인 국내 1호 박사 윤은호

154 **삶을 나르는 詩**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인생 찬가〉 _ 강남국
156 **우리do캠페인** '신과 함께' 웹툰작가 주호민은 장애자녀 아빠
158 **美터** SK에코플랜트의 에코울림 연주단
163 **해외 문화계 소식** 두 팔 없는 발레리나 비토리아 부에노
장애인엔터테인먼트 사업가 킬리 캣웰스
영국 로열발레단의 휠체어 발레리노
170 **INTERNATIONAL** Introduction of The "On-Emiji"
172 **세계화** '온이미지' 소개

174 **2022 누구 시리즈 5종**
175 **장애인예술 온택트 공간 '온이미지'**
176 **장애예술인 욕구에 기반한 정책 개발하는 장애인예술연구소**

E美지

한글, 영어, 한문을 조합하여 차이와 특성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 되겠다는 장애인예술의 각오를 담은 것으로 석창우 화백 작품이다. 제호 색상은 표지 작품 컬러에 따라 정해지며 한문 획으로 강렬한 포인트를 주고 있다.

COL!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캐릭터 COL!은 만화가이며 발달장애 아들을 둔 부모인 이정헌 씨 작품이다. 콘셉트는 아기광대이고 COL!은 communication(소통), opportunity(기회), love(사랑) 이니셜로 장애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사랑으로 소통하자는 뜻이고, 소리 콜(call)은 소통의 응답인 '좋아요'이다.

COL! 시즌 2_ 윙크하는 콜COL!

『E美지』 창간 5주년을 맞아 COL! 시즌 2를 선보인다. 그동안 COL!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눈으로 장애예술인의 잠재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상징하였는데 이제 윙크하는 모습으로 장애예술인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려고 한다.

2023년 장애인예술 美캠페인 "모두를 위한 예술"

영문으로 Arts for All 이니셜로 AA 캠페인입니다. 장애인예술의 목표는 주류 예술계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예술의 목표는 장애·비장애라는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모두를 위한 예술입니다.

회원 가입

E美지 아름다운 영토

• 회원 유형: 1년 구독 회원 ☐ 단체회원 ☐ 평생회원 ☐

– 1년 구독 회원: 회비 40,000원, 단체 구독 회원: 회비 100,000원(3권)

– 평생 회원: 회비 300,000원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비 입금 후 전화를 걸어 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Tel: 02-861-8848)

최부암_ 휠체어 사진가

첫 번째

바람이 분다

『E美지』의 첫 번째 목표인 장애인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장애인예술의 바람이 일기를 희망합니다.

E美지
아름다운 영토

Photo by 최부암 〈미선나무 꽃〉

2023년 교육·문화 정책방향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초대석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 확고히 밝힌 윤석열 대통령
– 걱정하지 마십쇼!

새해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연두(年頭)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기존의 연두업무보고와 다른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2023년 교육 · 문화정책 방향

정책 방향 보고는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보고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학생맞춤과 지역맞춤, 산업 · 사회맞춤 등 4대 교육개혁 분야별 핵심 정책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로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를 발표했다.

2023년 교육 · 문화정책 방향 프리젠테이션 첫 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교육과 문화는 우리나라의 부드러운 힘입니다.
교육과 문화는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업무보고 요지

박보균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윤석열 정부의 깃발은 '자유와 연대'입니다. 자유는 문화번영의 시대를 힘차게 전개하는 동력이고, 연대는 약자와 함께 누리는 문화입니다.

정권 출범 이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깃발에 담긴 국정 방향과 철학을 정책 속에 공세적(攻勢的)으로 주입, 실천해 왔습니다.

– 연대의 한 축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 언더독 예술인과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을 해 주는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들어갈 장르에 스트리트 댄스, 뮤직비디오, 웹툰을 추가한 것은 그 사례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약자 프렌들리(friendly)'입니다.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것도 그런 국정 기조를 반영, 실천한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약자 프렌들리의 정책 기조는 강화됩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구매제

국기에 대한 경례

도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에도 문화예술 드리머스(Dreamers)의 독창성과 상상력을 담은 정책으로 일류 문화매력 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K-컬처가 수출과 국가 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수성에 문화 산업 · 수출의 요소를 단련시켜 번영 · 도약의 정책 지평을 확장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원하는 것

현장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의 발제 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인사드립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입니다.

발표하는 방귀희 회장

장애예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새 정부가 장애예술인 지원을 국정과제 57번째에서 약속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창작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작지원금제도, 장애예술인들을 모든 예술 활동에 일정 비율 참여시키는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 그리고 장애예술인들을 기업에서 전속 예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예술을 예술 자체로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에게 예술은 취미 생활도 아니고, 재활을 위한 치료도 아닙니다. 장애예술인은 그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마련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을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이 개관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장애인예술이 지금 이렇게 가능한 일이 된 것은 여기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장애예술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님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장애인예술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허기에 차 있습니다. 또 언제 뒷 순위로 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한 두 분의 사랑과 의지가 변함 없으시길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발제자를 향해 '걱정하지 마십쇼!'라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심을 약속하였고,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큰 박수로 응원해 주었다.)

윤 대통령 "걱정하지 마십쇼!"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보면 이제 장애예술인은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닌 듯합니다. 앞으로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장애예술인 모두 더욱 열심히 예술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들 박수

박수에 감사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발언에 코멘트하는 박보균 장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정책기조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뜻이 깊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전시장을 정말 멋있게 그리고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무대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장애인예술은 자유사회의 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장애예술인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에 토대가 되는 연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특히 예술 방면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창작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 발표의 기회죠.
>
> 전시 발표의 기회가 있어야 창작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
> 저는 장애인예술 지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제가 이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문제를 우리 연대라는 가치에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박애의 정신, 연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올바른 자유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마무리 발언하는 윤 대통령

있습니다. 또 자유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복리를 준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문화정책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동등한 창작과 발표의 기회이고, 장애예술인의 현실은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하기에 정부가 먼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연대 정신을 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유 정신 또한 깊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이제 장애예술인에게 연대는 권리이고, 자유는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 위 내용은 지난 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2023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방향'을 KTV에서 중계 방송한 내용을 장애인예술 관련 부분만 전사(傳寫)하여 정리하였으며, 본지 발행인이 현장에 발제자로 참여하여 취재한 내용이다.

특집

장애예술인, 하하놀이 선생님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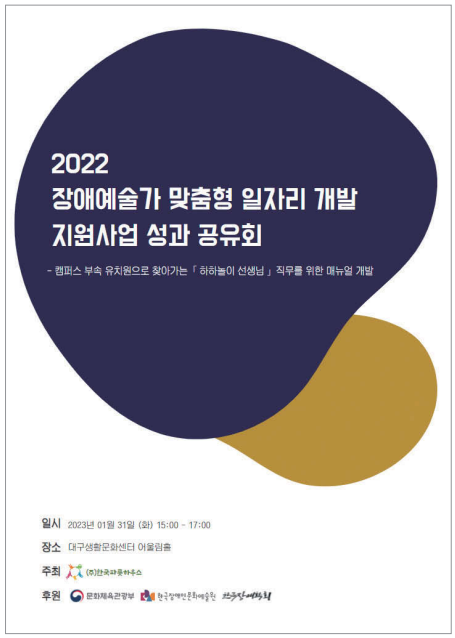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파릇하우스에서 202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개발 지원사업으로 캠퍼스 부설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하하놀이 선생님 파견 직무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장애예술인이 유아교육에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치원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2020년 이후의 놀이중심형 유아누리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창작공연과 전시에 편중된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주체자로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첫 단추가 되었고, 기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의 차이점은

문화예술 활동을 수단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의 '놀이중심 & 생활중심'의 예술 경험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하놀이 선생님'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 장르가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 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요 30곡을 선정하여, 피아노 반주(MR)와 노래(AR)를 녹음하고 QR로 제작하여 악기 연주가 가능하지 않은 장애예술인에게 제공하였다(소리 듣기 단계와 소리 만들기 단계).
- 한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가사판을 준비하였다(노래 함께 부르기 단계).
- 선정된 동요 30곡의 악보와 율동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QR로 준비하여 가사에 맞춘 동작을 율동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장애예술인에게 제공하였다(동작 만들기 단계).
- 수업의 시작은 '몸 깨우기' 단계로 스트레칭 및 체조 형식의 율동을 한 후, 소리 듣기 → 소리 만들기 → 노래 부르기 → 율동 배우기와 같은 구조적인 활동 이외에 전래놀이와 즉흥 춤놀이(약속으로 춤추기) 등 반구조적인 활동으로 준비하였다.
- 하하놀이 선생님으로 참여한 장애예술인은 6명으로 지체, 시각, 발달장애 유형을 갖고 있었으며, 대구대학교 부속 영광유치원(6개반 · 5회기 수업)과 계명대학교 부속 계명유치원(2개반 · 3회기 수업)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하놀이 선생님'은 장애예술인(주강사)과 비장애예술인(보조강사)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예술인은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음악, 율동, 이야기 장르에서 장애예술인들의 협업이 가능하다. 비장애예술인의 보조 활동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사업 시작 전 대구 지역 부설유치원, 국공립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원(120명 배포/112명 수집)을 대상으로 사전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72.3%가 사업 참여 의사를 갖고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한 교사들의 부모 예상 반응은 매우 긍정적 37.5%, 긍정적 31.3%, 보통 25.0%, 긍정적이지 않다 5.4%,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0.9%로 93.7%가 '하하놀이 선생님'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원들은 '하하놀이 선생님'으로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수 있기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유아들의 그림에

서는 휠체어나 부족함이 아닌 핑크색 리본을 하고 있는 예쁜 하하놀이 선생님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유아들이 장애예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하놀이 선생님' 성과

'하하놀이 선생님'은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자로서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학적 관점과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학교 안팎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서 장애예술인의 활동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현장에서 '하하놀이 선생님'들이 미래의 주인공인 유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로 '하하놀이 선생님 일자리 직무개발 매뉴얼'과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하하놀이 프로그램 교안'이 발간되어 누구라도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유치원에서 '하하놀이 선생님'으로 활동하여 장애예술인의 공공일자리 확보는 물론 재미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으로 유아기 시절에 올바른 장애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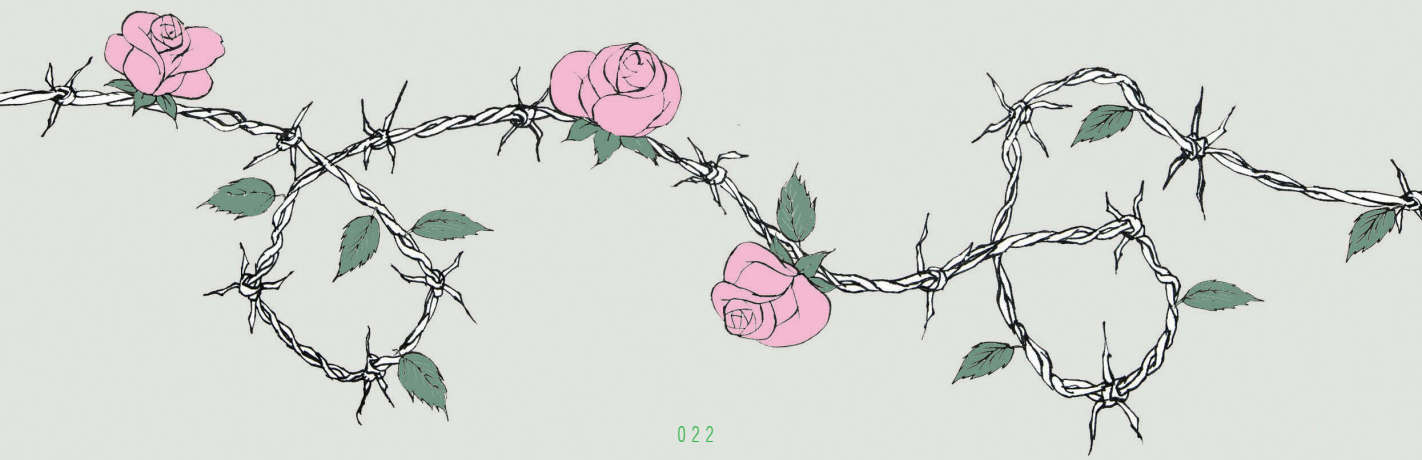
4월의 사과

새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우선 넓은 의미의 우리 안녕부터 챙기고 싶다. 우리 모두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그리고 차별로부터 안녕해야 한다.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 서글프다. 새해는 제발 우리 모두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좁은 의미의 우리들이 안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우리는 장애인이다.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기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안전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못하다. 그래서 미안하게도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장애인 가운데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데 필자가 애타게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바로 장애예술인이다. 우리는 자기 세계에 빠져 창작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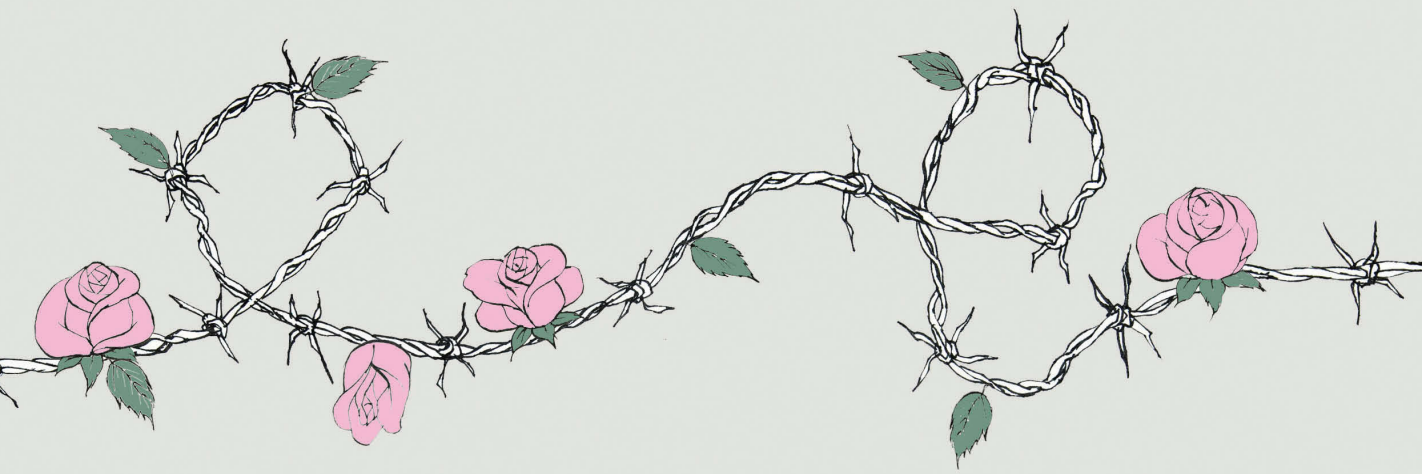


줄만 알았지 장애예술인을 위해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은 묻혀져 있었다. 그러다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새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안녕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국정과제라고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선순위에서 또 다시 밀려날지도 모른다. 하여 우리의 안녕을 지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뜻하는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국내 논문에서 '장애예술인은 장애가 있는 예술인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예술인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적 전문가로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설한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이 말은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은 하지만 그것이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으니 예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550명의 장애예술인이 수록된 〈2022장애예술인수첩〉을 제작하였는데 그 경력을 분석해 보니 장애예술인의 6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그중 46%가 예술 전공자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만든 차별의 결과이다.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는 법이 필요했고, 대통령 공약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장애예술인을 알리는 일에 올인했다. 장애예술인 전문 잡지 『E美지』를 만들고, 장애예술인 스토리텔링북 '누구 시리즈' 100종을 목표로 현재 18종을 발간하였다. 잡지 역



시 자발적인 독자가 없어서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소개하는 장애인예술 플랫폼 '온이미지'를 개국하여 새해부터 구독자 확보를 위한 호객 행위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장애인예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가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인데 이것의 특징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비형식적이고 다원성과 수평성이 강조된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권력이 된 형식이 흩어져 수평이 이루어지고 그런 평등 구조가 소외되는 예술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장애 때문에 예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개선되어 '모두를 위한 예술'이 된다면 장애예술인은 정말 안녕해질 수 있다. 새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안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더 간절히 장애예술인은 '누구?' 이렇게 낯설어하지만 '온이미지'를 통해 '누구!'라고 반가워해 주기를 바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로 보편성과 개별성이 통합되고, 더 나가 주류와 비주류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예술인을 예술인으로 보지 않는 무개념 테러는 자행되지 않을 것이다.

글 **방귀희**/일러스트 **김형태**

* 위 글은 세계일보 오피니언(2023. 1. 3)에 실린 내용입니다.

스터디

2022장애예술인수첩 내용 분석 결과

—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의 수월성이 매우 높다

장애인예술연구소

제목 설명

원 제목은 〈장애예술인수첩〉이고, 별칭으로 〈A^+ 수첩〉 사용(A^+는 able, access, ace Art를 의미),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수첩이라서 제목 앞에 2022를 붙였다.

목적

2018년도에 제작된 〈장애예술인수첩〉이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되었듯이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을 위해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증보판을 제작하였다. 본 수첩은 방송과 기업 섭외 요청 그리고 정부 기관 이사나 위원회 추천에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선정 방식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예술인수첩 등록 신청을 받고 있음을 알렸고, 에이블뉴스 배너 광고를 3개월 동안 실시하여 이메일을 통해 5월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장애예술인수첩 등록 조건은 예술 부문에서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품 발표 5회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의 예술인(장애인복지카드 소지)이다. 개인 작품 출간이나 개인 전시회 또는 개인 콘서트는 1회 이상이며, 활동 장르는 문학, 미술(사진/건축), 음악(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이다.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1차로 심의한 후, 장르별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최종 등록 장애예술인을 확정지었다.

알아두기

- 순서는 각 장르별 이름 가나다순
- 장르 분류는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표 장르 1개만 기재
- 장애예술인의 경력은 문화예술 분야만 기재하였으며, 방송도 해당 분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만 명기, 활동을 하다가 중도에 장애가 생긴 경우는 장애예술인 이후의 경력만 기재
- 보내 주신 내용을 그대로 살린다는 원칙으로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음
- 장애예술인 가운데에는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소속 단체와의 관계 등으로 수첩 등재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그분들이 묻히는 것은 장애인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개하고 이름 앞에 *로 표시
- 엮은이는 2022한국장애예술인수첩발간위원회이며, 주최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 수첩은 비매품임.

사용 준칙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섭외 목적으로 연락처를 원할 경우 협회로 문의를 하시면 작가의 동의를 받아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한다.

내용 분석

2022한국장애예술인수첩발간위원회에서 선정한 장애예술인은 550명이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예술활동증명 현황은 129,450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예술인은 1,933명으로 전체 예술인의 1.49%이다.

따라서 이번 수첩에서 기재된 550명은 예술활동증명 장애예술인의 28.5%로 유의미한 규모이다.

장애예술인의 장르별 분포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합계
115(21%)	164(30%)	151(27%)	120(22%)	550

미술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음악(27%), 대중예술(22%), 문학(21%)이 이었으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21년 예술활동증명 장애예술인 현황에서 미술이 33.4%로 가장 많았고, 대중예술 24.6%, 음악 23.1%, 문학 18.9%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본 수첩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2021 예술활동증명 장애예술인 분야 현황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365	621	95	–	378	69	40	131	49	59	25	101	1,933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1. 12. 31. 기준)

〈2022장애예술인수첩〉의 분야별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장애예술인 성별 분포

장르	남	여	합계
문학	81(70%)	34(30%)	115(21%)
미술	98(60%)	66(40%)	164(30%)
음악	113(75%)	38(25%)	151(27%)
대중예술	78(65%)	42(35%)	120(22%)
합계	370(67%)	180(33%)	550(100%)

장애예술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표1〉에서 보듯이 남성이 6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여 여성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가장 많은 장르는 음악(75%)이고, 여성의 참여가 가장 많은 장르는 미술(40%)로 나타났다.

〈표2〉 장애예술인 장애 유형별 분포

장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	중복	기타
문학	70(61%)	27(24%)	12	4	×	×	2	
미술	87(53%)	12	9	24(15%)	10	20	2	
음악	18	2	33(22%)	3	28	63(42%)	4	
대중예술	54(45%)	17	25(21%)	13	3	2	4	안면장애 1 신장장애 1
합계	229(41%)	58(11%)	79(14%)	44(8%)	41(7%)	85(16%)	12(2%)	2(0%)

*미술의 발달장애 표기 2명, 음악의 발달장애 표기 12명은 자폐로 분류

장애예술인의 장애 유형별 분포는 〈표2〉에서 보듯이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41%를 차지하였고,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합하면 22%로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장애 유형은 장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체장애는 전 장르에서 고른 우위를 보였고, 미술은 청각장애, 음악은 시각장애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지적과 자폐성 장애인은 문학과 대중예술에서는 매우 저조하였으나 미술과 음악에서는 활동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표3〉 장애예술인 공모 데뷔

장르	장애인예술 분야	비장애인예술 분야
문학	46(40%)	69(60%)
미술	96(59%)	68(41%)
음악	102(68%)	49(32%)
대중예술	57(47%)	63(53%)
합계	301(53.2%)	249(46.8%)

장애예술인의 데뷔 방식을 보면 장애인예술 분야에서 데뷔한 경우가 53.2%, 비장애인예술 분야에서 데뷔한 경우가 46.8%로 비장애인예술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장애인예술계에서 데뷔한 장르는 문학이 60%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32%로 가장 낮아서 음악 부문이 아직 장애예술인에 대한 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장애예술인 전공 분포

장르	무응답	대학	대학원 이상/박사	예술전공*
문학	38(33%)	54(47%)	23(20%)/6	34(30%)
미술	66(40%)	65(40%)	33(20%)/4	70(43%)
음악	22(15%)	89(59%)	40(26%)/7	120(79%)
대중예술	50(42%)	54(45%)	16(13%)/4	28(23%)
합계	176(32%)	262(48%)	112(20%)/21(4%)	252(46%)

* 대학교 이상 학력에서 예술을 전공한 것에 고등학교와 대학아카데미에서 예술을 공부한 것까지 포함하여 예술 전공을 산출하면 장애예술인의 46%가 예술 전공자이다.

장애예술인의 6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아카데미에서 예술을 공부한 것까지 포함하여 예술 전공을 산출하면 장애예술인의 46%가 예술 전공자이다. 장르별로 보면 음악이 전공율 79%로 가장 높았고, 대중예술이 23%로 가장 낮았다.

〈2022장애인예술수첩〉 분석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매우 전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는데 장애예술인의 46%가 예술 전공자이다.

비장애인예술 분야에서 데뷔한 경우가 46.8%로 비장애예술인과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예술인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편견이었음이 드러났으며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의 수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스페셜

기술 기반의 작품 변화와 장애인미술의 접근성

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5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비 전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목 표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추진전략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4.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5.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추진전략 4의 두 번째가 장애인예술의 신기술 도입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소개한다.

4-2.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

···›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신기술 활용 융복합 예술 개발**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등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예술작품 개발 및 문화향유 확대
- **메타버스 활용 지원** 장애예술인의 메타버스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 확보 및 활용 지원
- **신기술 관련 맞춤형 교육 운영** 장애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신기술 현황 조사 및 활용 교육 지원

···› 인공지능 기반 장애예술인 지원 도구 개발

- **기초연구 수행** '장애예술인'과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해 창작 활동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인공지능 창작도구 개발** 문화기술 R & D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 장르별 · 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 개발 지원

장애인미술계도 급격히 변화하는 4차산업 시대의 신기술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하기에 기술에 기반한 미술계의 중요한 변화를 짚어 보고,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있는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교육 지원과 인공지능 기반 장애예술인 지원 도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본다.

1. 복제 미술

앤디 워홀(Andy Warhol)은 192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앤드류 워홀라이다. 아버지는 석탄 광산에서 일하던 체코슬로바키아 이민자로, 그가 14세 무렵 사망하였다. 앤디 워홀은 시드남 무도병(팔, 다리, 몸을 흔드는 질병)을 앓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워홀에게 미술 도구를 사 주며 예술의 길로 들어서게 해 준 사람이 바로

워홀의 어머니이다.

워홀은 피츠버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으며, 1949년 뉴욕으로 올라와 잡지 일러스트레이터 및 광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1950년대 『보그』, '하퍼스 바자' 등의 잡지와 광고에 삽화를 그렸으며, 아트 디렉터로 각종 상업 광고물을 제작했다. 그는 아트 디렉터 클럽 어워드, 아트 디렉터 클럽 메달 등을 수상하고, 뉴욕 현대미술관의 〈최근의 드로잉, 미국展〉에 초청되었다. 또한 잡지 『라이프』도 그의 삽화들을 출판하는 등 젊은 나이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50년대 말 워홀은 캔버스에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광고와 뉴스 표제 기사, 연재 만화 등 매스미디어에서 소재를 찾았다. 그리고 1960년대 초 배트맨, 딕 트레이시, 슈퍼맨 등 만화 속 인물에 대한 연작을 제작하면서 팝아트 운동에 동참했다.

1962년 워홀은 〈캠벨 수프 통조림〉, 〈2달러 지폐들〉을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해 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비 사회의 물품들에서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비스 프레슬리 등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할리우드 스타들의 스틸 사진을 잘라 다양한 크기에 다양한 색깔을 입혀 대량으로 복제했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워홀은 인물의 내면이나 성격을 드러내는 초상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으며, 그의 작품 속에서 인물들은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산물, 그 자체로 보였다.

앤디 워홀이 이러한 작품들을 발표하였을 때 당시 그의 예술에 대한 반론이 팽배하였다. '이것이 예술인가?'라고 수근거렸다.

미술관에는 존재하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일상에서 발견되는 사물의 지루한 반복이었기에 친숙하면서도 충격이었다. 워홀은 그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을 대중화시켰다.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돈, 코카콜라병, 브릴로 상자, 통조림과 같은 비예술적 사물들을 소재로 삼아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고, 예술과 일상의 간극을 좁혔다. 즉, 다다와 뒤샹 이후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킨 것이었다.

앤디 워홀은 실크스크린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사진, 영화,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예술과 비예술, 순수미술과 상업 디자인, 고급과 저급 예술,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를 흐리게 하였다.

워홀은 대중이 원하는 대중문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간파하였고, 객관적으로 동시대 문화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워홀은 미디어의 대량 공세가 인간의 감정까지도 제어하는 현실, 미디어가 생산하는 환상과 리얼리티와의 간극을 직시하였고 일상적인 대상들을 선택하여 실크스크린과 또는 사진과 같은 복제 방식과 반복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로움이 제거된 기계 복제 시대에 가장 걸맞은 예술가였다.

1987년 워홀은 의료센터에서 담낭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다음 날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심장발작을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다.

2. NFT 미술작품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여 다른 복제품과 차별성을 갖는 토큰이다. 주로 예술품,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수단이다. 복제가 불가능한 진품임을 보증하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 볼 수 있다.

NFT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 주소를 삽입할 수 있는 형태면 어떤 것이든 NFT로 제작 가능하며,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이라고 한다. NFT의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이 된다. 똑같은 코인이 2,000만 개 가량 발행되는 암호화

페와는 달리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이 있어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NFT의 적용 범위는 넓다. 이미지, 소리, 텍스트,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서부터 예술품, 음원, 게임 아이템, 가상 부동산, 각종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 중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술작품이다. 미술시장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애호가들의 관심도 높다. 디지털 작품을 민팅한 NFT를 디지털 아트 또는 크립토 아트(Crypto Art)라고 한다.

민팅한 디지털 아트의 특성 중 하나는 유일성이다. 유일성은 희소성의 가치를 지닌다.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영구보존도 가능하다. 일종의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NFT 미술작품의 거래 기록도 블록체인에 고스란히 남는다. 하여 예술품 판매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된다. 거래의 투명성은 기존 미술시장의 폐쇄성을 해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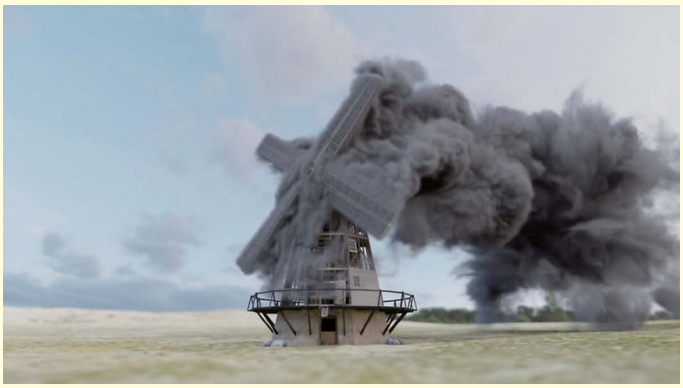
가상자산이지만 NFT는 유일성이란 가치 때문에 그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거품 또는 투기라는 시각을 간과할 수 없다. 미술작품의 가치 책정도 매우 주관적이다. 가치의 기준점이 불분명한 만큼 작품성과 상품성의 경계도 모호하다. 작가는 작품을 홍보하고 누군가는 투자를 통해 소득이 생기지만 미술작품을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NFT 작품–심심한 원숭이 이미지

3. VR 전시

VR(virtual reality)은 가상현실로 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한 것, 즉 존재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감각을 통해 체험하는 인공 현실이다.

VR을 활용한 예술 전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보여 주는 새로운 미술이다. 예술가들이 기술을 예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부터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실시간 연옥 ©박재훈

이 그림은 2021년에 전시되었던 박재훈 작가의 〈실시간 연옥〉으로 VR 안경 없이도 관람객들에게 VR 효과의 놀라움을 보여 주었다. 지구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작품이다.

박재훈 작가는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고 또 어떤 이에게는 천국 같은 이 세상을 〈실시간 연옥〉이라고 하였다. 연옥(煉獄)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으며 일부 영혼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곳을 말한다.

4. 모나리자의 재현

모나리자(The Mona Lisa)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가 1503~1506년에 그린 작품으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피렌체의 부유한 비단 장수인 조콘도 아내의 초상화로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다. 리자 부인이 수수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다. 이 초상화

를 보면 여인의 눈썹이 없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넓은 이마가 미인으로 여겨져서 여성들이 눈썹을 뽑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이라 하는데 수줍은 듯 살며시 입에 머금은 모나리자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가 되었다.

모나리자는 음악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다 빈치는 연주자를 불러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어 그녀가 항상 신비로운 미소를 짓게 했다.

다 빈치가 모나리자를 스푸마토(sfumato) 기법으로 윤곽선을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그린 것이 신비로움을 더하게 했다. 이 화법은 당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모나리자는 예술작품 중 가장 많이 패러디되고 복제되었다. 광고, 잡지, 애니메이션, 입체, 심지어 구운 토스트로 재현될 정도이다.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예술작품이 된 기성품 즉, 기존에 만들어진 우리 주변의 것들을 가져다 쓰는 '레디메이드(ready-made)' 기법은 작가가 곧 창작자여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

1919년 마르셀 뒤샹은 파리의 길거리에서 모나리자가 인쇄된 엽서를 구입했다. 그리고 거기에 검은 펜으로 수염을 그려 넣고 알파벳 대문자로 'L.H.O.O.Q'라고 적었다.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elle a chaudau cul'이고, 뜻은 '그 여자의 엉덩이는 뜨겁다'이다. 뒤샹은 1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유럽에 팽배했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인 다다이즘 화가이다. 다다이즘은 전후의 무의미함과 허무주의를 암시하고, 부조리를 내세우며 전통미술과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대중적 이미지를 적극 수용했던 앤디 워홀도 1963년 모나리자를 재현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품고 있는 고고한 유일성과 상징성의 아우라를 부인하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복제를 반복했다.

1978년 제작된 페르난도 보테로의 〈뚱뚱한 모나리자〉는 팝아트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무겁고 장엄했던 예술에 발랄함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피티(Graffiti) 화가로 알려진 장 미셸 바스키아는 길거리에 마치 아이들의 낙서처럼 보이는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뉴욕 최고의 갤러리로 진출했다. 바스키아는 하위문화라고 여겼던 그래피티를 예술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가 재현한 〈모나리자〉(1983)의 이미지는 1달러에 인쇄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예술과 돈이라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모나리자〉 원본과 재현 작품들

〈모나리자〉의 재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대에 따른 〈모나리자〉의 변신은 명작을 오래도록 유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나리자〉 디지털 변형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작가가 아니어도 〈모나리자〉의 변신은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재현을 통해 작품을 즐기고 있으며, 미술 더 나아가 예술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미술 감상의 BF

미술을 시각예술이라고 하는데 작품을 눈으로 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각예술을 소리로 감상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작가 소개와 작품 설명을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변환시켜 준다면 시각장애인의 관람권이 확보될 것이다. '온이미지(onemiji.com)'의 스마트전시관에서는 기계가 텍스트를 읽어 주기 때문에 녹음 작업 없이도 아주 간단하게 시각장애인 미술 관람이 가능해진다.

그 사례로 시각장애인화가 박환의 작가 소개와 작품 설명의 텍스트를 소개한다.

박환 〈경이로운 삶〉

작가 소개

박환 작가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생활을 하기 위해 붓을 잡았는데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출품해서 입선을 했어요. 2013년 한국국제아트페어를 마치고 3주 후 교통사고가 났죠. 개성 있는 화가로 인정을 받으며 한창 활동할 시기에 화가로서 치명적인 운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빛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전맹이예요.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머

릿속으로 구도를 잡고, 캔버스 위에 연필이 아닌 실을 잘라 붙여 가며 밑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붓이 아닌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색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고 간 지인이 여러 갤러리에 소개를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갤러리 쿱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박환 작가는 안 보여도 화가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이 화가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작품 설명

〈경이로운 삶〉은 은행나무 한 그루를 그렸어요. 늦가을의 은행나무 같아요. 노랑 은행잎이 나무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은행잎은 땅바닥에 노랑 융단을 깔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 주죠.
떨어진 은행잎이 더 화사해서 은행잎이 은행나무 아래에서도 피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작가가 은행잎을 떨어트린 이유는 바로 은행나무 가지의 역동성을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은 은행나무의 은행잎만 아름답다고 하지 가지는 잎에 덮여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죠. 박환의 은행나무는 나무줄기가 건강한 남성의 힘줄인 듯하여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져요. 화폭 가득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고 배경이 바닷가와 바다와 이어진 하늘이어서 단순해 보이는데 은행나무를 자세히 감상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은행나무를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6. 기대 효과

세계인권선언문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권리 즉,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예술권만큼 중요한 것이 장애인 문화향유권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문화권 확보를 위해 문화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과 영화 감상을 위해 화면을 말로 설명해 주는 음성해설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촉각으로 만져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림 해설을 점자로 읽을 수 있게 점자 안내서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미술작품은 꾸준히 재현되고 있고, 그것은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미술도 새로운 재현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관람 접근성 즉 BF(Barrier Free) 전시 방법이 새로운 콘텐츠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르별 협업 즉 문학과 미술, 음악과 미술, 연극과 미술 그리고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 모든 장르가 결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한꺼번에 종합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남시(2021),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다변화하는 미술의 존재 양식', Sema Coral
김보름·용호성(2021), 'NFT 미술시장의 주요 쟁점과 전망',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서영옥, 'NFT를 준비하며', 대구일보(2022-08-11)
온이미지, 스마트전시관-10인열전(2022)
『E美지』 24호, 스페셜-현대미술의 아이콘 앤디 워홀의 장애(2022)
이장우, 'NFT, 디지털 세상의 원본을 증명하다', 『SW중심사회』 2021년 9월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예준녕, 홍석원(2021), 'NFT의 사회적 요소와 한국 시장에서의 잠재성'
최성원 외(2021),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의 비즈니스모델 혁신요소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예술의 향기-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보여 주는 놀라움 'VR을 활용한 예술 전시'

별에서 온 詩

공존의 의미

이 선 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별들
그 별들 중 지구촌 한켠 이 땅에도
지팡이에 의지하며 사는 이가 있네
말 대신 수화를 하며 사는 이가 있네
입으로 볼펜을 물고 글을 쓰며 사는 이가 있네
발가락에 붓을 끼워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이가 있네
휠체어를 타면서 사는 이가 있네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하고 누워만 사는 이가 있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도 있다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장애인이라 부르네
그러나, 그러나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싶네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별들
그 별들 중 가장 신비롭다는 지구촌 한켠 이 땅에서
우리들은 당신들과 공존하면서 살고 싶네
공존의 의미를 지니고 살고 싶네

故 이선관

남. 1942년생. 뇌성마비. 마산시 문화상(1987), 마창 불교문화상(1993), 녹화문화상(1997), 통일문화 공로상(2000) 외.
민족문학작가회의 자문위원 외. 시집 「기형의 노래」, 「독수대」, 「보통 시민」, 「살이 살과 닿는다는 것은」, 「창동 하새비의 꿈」, 「지구촌에 주인은 없다」, 「오늘 우리는 그대 곁으로 간다」, 「배추 흰나비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어머니」 외.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년을 다니다 중퇴. 불굴의 의지로 정의로운 삶을 노래했던 마산의 시인으로 1972년에 『씨알의 소리』에 〈헌법 제1조〉와 〈무제〉를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음.

The Meaning of Coexistence

Lee Seon-gwan

All the stars move round, rotating and revolving,
and here in this land in some corner of earth among those stars
there lives someone who relies on a walking stick.
There lives someone who uses sign language instead of speech.
There lives someone who writes with a ballpen between their teeth.
There lives someone who paints with a brush held between their toes.
There lives someone who uses a wheelchair.
There lives someone who has never stood up and is always lying down.
But
there are people living with even more discomfort and pain than them.
Be it from birth or from later in life,
those people living their lives are called disabled by others.
But, be that as it may
there is something we want to say,
we want everyone to know that before being disabled we are persons.
As the stars move round, rotating and revolving,
here in this land in the most marvelous corner of earth among those stars
we want to live with you all in coexistence,
we want to live out the meaning of coexistence.

Mr. Lee Seon-gwan (deceased)

Born 1942. Cerebral palsy. Masan City Literature Prize (1987) Machang Buddhist Culture Prize (1997)
Nokhwa Culture Prize (1997) Unification Cultural Achievement Award (2000)
Poetry collections: Deformed Songs; The Earth Has No Owner; and 5 others

중계석

장애예술인과 함께

2023 신년 인사회 & 음악회에 장애예술인 초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음악회에 참석하였다. 신년인사회에는 박정자 배우를 비롯해 강수진 발레리나, 석창우 화백 등 원로부터 정은혜 작가, 영제이 안무가 등 신진 예술인까지 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외국 다자회의에 가 보면 많은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와 뭔가를 도모하고 싶어한다. 또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우리가 산업만 크고 문화예술의 수준이 떨어졌다면 아마 우리를 많이 무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국의 내공에 대해 나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제가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신년음악회 관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좌우에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화가 김현우, 소설가 정보라, 판소리 명창 안숙선 씨 등이 자리했다. 이날 공연은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국민 공모자 등 2천여 명이 관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 장애예술인, 의사상자 가족, 국가유공자 후손과 전몰장병 가족, 자립준비 청년, 산재근로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초청됐다고 밝혔다.

장예총 미국 공연

장예총 배은주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에 장예총 배은주 대표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 갈 8기 위원 9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지난 1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1월 9일까지 3년이다.

문체부는 '신임 위원들은 연극 · 전통예술 · 미술 · 문화일반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 전문성과 더불어, 문화예술 정책 이해도, 소통 능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정책과 사업을 통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장애인예술, 지역문화 관련 전문성도 두루 살폈다.'며, '문예진흥기금 확충 등 문예위 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 예술경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도 위촉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는 2월 23일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배은주 상임대표를 제6대 상임대표로 선출하였다. 연임에 성공한 배은주 대표는 '장애인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들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인예술 3대 사업 발표 성료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가 장애예술인 활동 대중화를 위한 장애인예술 3대 사업 발표를 겸해서 개최한 장애예술인 송년 큰잔치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으로 실시되었는데 장애예술인증명제도의 기초가 될 〈2022장애예술인수첩〉 발간, 장애예술인 스토리텔링북 〈누구?!시리즈〉 5종 출판, 장애인예술 새로운 구독 공간 '온이미지' 개국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코로나19로 대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장애예술인들이 편안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KT에서 행사를 후원하였다.

방송인 강원래 씨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 설미희(여, 뇌병변장애)의 시낭송을 감상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자발적으로 무대로 올라가서 청년 시절 시인이 꿈이었다며 설미희 시인의 시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큰 시인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설 시인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시인으로 성장한 제자를 위해 꽃다발을 전달하여 훈훈하고 감동적인 시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시리즈 5종 발표회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이정희, 김뜰의 책을 박보균 장관과 김예지 의원이 들고 박환, 김남제, 고아라 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여 뜻깊은 홍보가 되었다.

박보균 장관 축사

설미희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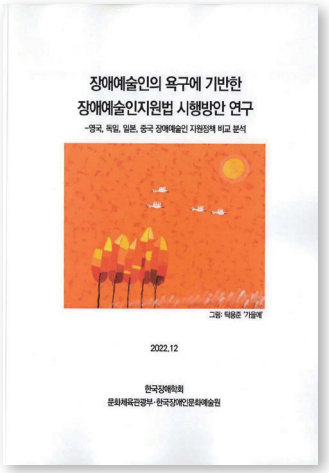
누구 시리즈 5종. 왼쪽부터 박환, 김예지, 박보균, 김남제, 고아라

장애예술인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선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에게 김예지 의원을 그린 최지현 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감사패가 전달되어 눈길을 끌었다.

축하 공연 또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발달장애 성악가로 올해 카네기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쳐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박혜연의 열창, 노래하는 시각장애 시인 손병걸의 시낭송, 장애인의 재해안전권을 미니상황극으로 꾸민 〈그 집 모자의 기도〉가 소개되어 장애인예술의 의미와 역할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방귀희 대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예술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졌지만 장애예술인들이 열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수월성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예술을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하면 한류의 흐름을 보다 착하게 이어 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애인예술 3대 사업발표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외에 서울시문화재단 이창기 대표,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원장,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 그리고 석창우 화백을 비롯한 장애예술인 200여 명이 참여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장애예술인 정책에 대한 열망을 보여 주었다.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한국장애학회(회장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를 내놓았다.

장르와 장애 유형별로 장애예술인 16명이 참여한 FGI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가 생생히 드러났다.

또한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의 최신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함께 5개 국가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이 비교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FGI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에 개인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예술 전문 에이전시에서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며, 공공쿼터제도는 공공구매부터 시작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연장 편의시설 및 편익 서비스가 필요하며 대관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할인제도의 필요성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고용지원으로 기업소속 장애예술인이 있어서 기업 광고나 방송에 장애예술인 작품이나 공연을 PPL로 사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

사업 선정이 된 후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출판사나 행사 장소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고정 출판사를 지정하여 주거나 장소를 선계약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FGI가 아니어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장애인예술계 의견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 단위를 성격에 따라 2~3년으로 구분을 하고, 사업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어야 장애인예술의 수월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업비 800만 원 지원으로 공연을 하려면 대관료로 절반이 나가고 배리어프리 공연을 만들기 위해 수어통역사 비용이 출연료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빚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는 호소도 있었다.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등 불필요한 행정에 지쳐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망설이게 된다고도 하였다.

연극은 비장애예술인들과 협업해야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서먹한 채로 공연을 할 때가 많다면서 장애와 비장애예술인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 가는 기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 예술 활동에는 창작과 실연이 있는데 지원은 창작지원에 국한되어 있어서 국악은 창작이 아니라고 선정이 안 된다고 억울해하는 장애국악인도 있었다. 국악은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리를 자기화하여 표현하는 공연이 창작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고,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수용해야 장애인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기에 장애인예술을 많이 알리는 홍보에 대한 갈증이 컸다.

이번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 장애예술인 욕구 기반 기본계획 실천 방안(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 독일의 장애예술인 행동계획: 포함과 참여(김용진 강남대학교 외래교수), 영국의 장애예술인 10년 계획: Let's create(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 일본의 장애예술인 추진계획: 문화향유와 창작 활동(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 중국의 장애인보장계획: 특수예술 발전(차희정 아주대 외래교수)을 소개하였다.

각국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비교

	한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법적 근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평등법」, 2010	UN장애인권리협약, 2006국가행동계획2.0	「장애인예술문화활동추진에 관한 법률」, 2018	「장애인보장법」, 1990
기본계획기간(년)	5('22~'26)	10('20~'30)	5('17~'22)	5('18~'22)	5('21~'25)
목표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Let's create (창작합시다)	다양성 (포함과 참여)	문화향유와 창작 활동	특수예술 발전
현황	문화예술 활동 수입은 월 18만 원	주류화 수준 미흡	고용영역에서는 아직 많이 열악한 수준	보수를 받는 장애예술인 6.4%	5개년 장애인 보장 및 발전 계획에 포함
예산	함께 누리	National Portfolio(4년), 복권기금(일회)	다양성 펀드	후생노동성과 문화청 지원 사업	장애인예술발전 기금
대표 사업	A+페스티벌, 스페셜K	다다 페스트 (2년 단위)	문화와 통합 네트워크, 창작소, 예술보조인	국민문화제와 함께 장애인예술문화제 동시 개최	전국장애인예술 공연(4년 단위)
대표 단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셰이프 아츠	EUCREA	에이블아트컴퍼니	중국장애인예술단, 중국특수예술협회
비고	장애예술인 수월성 확보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	예술영역의 포함 (Inklusion)과 참여	단기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 보장	장애인예술은 성(省) 단위 예술단체와 교류, 협력

DCL오케스트라

DCL오케스트라의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사)DCL오케스트라(장은도 대표)에서 공연수익금으로 장애인화가 2명에게 올 1월부터 월 7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었다. 장애예술인에게 이와 같은 창작지원금 후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선공연으로 10년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온 장은도 목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오케스트라 'DCL(Deos Cristus Logos) 오케스트라'에는 그의 제자들과 주변 음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선 음악회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소년소녀가정 전세보증금 마련, 선교지 악기 지원, 연변 탈북자 자녀 돕기,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양로원 봉고차 지원 등 뜻있는 일들을 해오는 DCL오케스트라는 2022년 12월 7일에도 서울 강남구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이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김예지 국회의원과 성악가 김동현 교수, 발달장애 첼리스트 여명효 등이 출연하여 깊은 의미를 선물하였다. 이 공연 티켓 수입금 가운데 일부를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두 번째

반하다

『E美지』 두 번째 목표인 장애예술인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예술에 반하는 열정을 원합니다.

E美지
아름다운 영토

Photo by 최부암 〈조팝나무 새싹〉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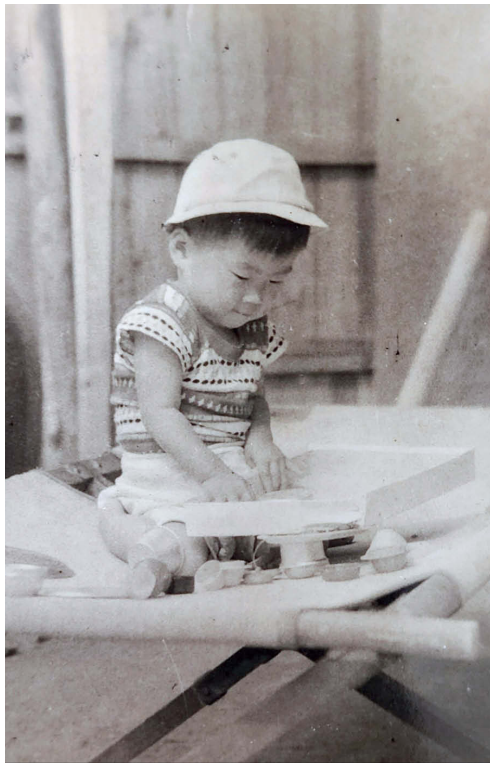
최윤정 작가는 비상 중

오 남매의 셋째 딸

최윤정이 태어난 1959년은 한국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타인에게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각박했던 시절이다. 윤정은 서울 신촌에서 4녀 1남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뇌병변장애가 있었다. 당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 많이 아파서 먹은 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위 작은언니 또한 같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당시는 팔자론이 더 우세했다. 언니는 3세 때 황달로 심한 뇌병변장애가 생겼다. 어머니는 보채던 언니를 품에서 떼어놓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언니를 품에서 놓지 못하셨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오 남매 모두 학교에 보내기 힘들었다. 비장애인 형제부터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던 엄마는 '나중에 꼭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형제들이 모두 졸업을 해도 윤정의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의 가방을 한 번씩 메어 보고, 어깨 너머로 책을 읽는 것이 윤정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학교를 너무 다니고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널 가르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형편이 되지 않아 학교를 보내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까지 아파요."



장애인 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키워야 했던 엄마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를 지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상처를 꺼내 놓았다.

"그때는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흉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언니와 저를 방안으로 몰아넣으면서 나지막하게 '미안하다.'라고 하시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를 숨

겨 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인사시키는 모습에 저도 따라 울곤 했습니다. 그 여파로 아직도 오남매 중 언니와 난 유령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으로 시인이 되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윤정에게는 간절한 소망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녀는 글을 썼다. 손의 장애로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기록했던 것인데 그것이 시가 되었다. 윤정의 생각노트가 한 권 두 권… 쌓여져 갔다.

지금 읽어 보면 글도 시도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썼던 것이 작품 활동의 밑바탕이 됐다. 윤정이 시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것은 그녀의 작품을 보고 공모전에 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고 난생처음으로 공모전에 응모한 시 〈창문〉으로 제3회 곰두리문학상 가작에 당선된 후, 그녀는 '이제부터는 이게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얼룩진 창문에 새벽 비는 언제나 그렇듯 영롱한 아침 무늬가 돼 버린다'로 첫 행을 시작하는 시이다.

그녀는 전동휠체어 덕분에 외부 활동을 한다. '글마을'이란 모임에서 시작(詩作)과 관련된 이론 수업을 받았고 작품에 대한 토론도 했으며 시 낭송회에도 참석하였다. 그녀가 외부 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후에도 윤정의 일상은 '작은 창문 밖 세상보기'였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일상생활을 기록했다. 그러던 중 문복희 시인이 윤정의 글을 보고 '시집을 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며 돌아왔지만, 지루한 일상 속에서 문득 '한번 해 볼까?'란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120여 편의 시를 문 시인에게 보여 줬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첫 시집이 「그리움은 안개가 되어」이다.

그 후 「그리움은 영원히」, 「또 다른 그리움」, 「고양이」에 이어 시집 「다섯 식구」가 2021년 발간되었다. 이 시집은 최윤정 작가의 일러스트로 디자인하여 작가의 재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집이다.

고양이 같은 사랑하기

그녀는 '비가 오던 날 새벽 내 방의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꼭 내 마음 같았다.'는 말로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살짝 내밀었다. 당시 그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 봐 연인을 떠나보내고 사랑앓이를 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가끔 전화가 왔는데 옛날 감정이 생각나게 될까 봐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친구가 되었죠.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살짝 내미는 여인의 발끝
소리 없는 윤곽 같다
이름은 두 개
날지 못한 나비가
한을 풀 듯 사뿐히
내딛는 발그림자

유연한 몸매
아치형이 되어 버리고
전설에 갇혀 겁먹은 시선은 떨고 있다

빛을 지탱하는 버선 끝
토닥토닥 손에 흥건히 젖어 본다

– 최윤정의 〈고양이〉

살금살금 다니는 고양이, 겁먹은 눈이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는 최윤정의 시 〈고양이〉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서워 피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은 이 작품으로 2016년 문예지『화백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주고 있는 활동보조인 조성락 씨는 그녀의 하나뿐인 반쪽이다. 10년 전 활동보조를 하며 만난 두 사람은 물 흐르듯 인연을 이어 오면서 늦깎이 사랑을 키우고 있다. 그녀에게 주스를 먹여 주고, 언어장애가 있는 그녀의 말을 대신 전해 주는 성락 씨를 '다정하지는 않은데 날 끔찍이 생각해요.'라고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안마원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방문 안마를 받을 때 보조원으로 와서 안마를 해 주고 갔어요. 그때는 내 눈에 성락 씨는 보이지도 않았고 그저 안마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활동보조인이 되어 티격태격하다가 눈 깜빡 하니까 십 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네요. 이제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 가게 되었고, 보이지 않게 서로 감동도 주고받고는 합니다."

주위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의 남자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 가는 최윤정 시인을 부러워한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문학 덕분이다. 글로 표현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최윤정 작가의 비상

늦은 나이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배우지 못한 한을 풀었다.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 이제는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하고 있으니 소통의 한도 풀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이름은 '일러스트레이터'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 요소로 표현하는 삽화나 캐릭터 작업을 한다. 손에 장애가 있는 그녀는 모양자를 들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는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자를 잡아 준다. 색연필로 제작한 그림을 물품으로 제작해 선물하거나 직접 팔기도 하는데 미소 화장품 케이스 디자인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최윤정 작가는 이런 현실을

"수입은 없다고 보면 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장애예술인들도 비장애예술인과 똑같이 노력해서 창작을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이젠 인식이 바뀔 만한데 아직까지 편견의 벽은 높아요. 장애를 하나의 개성으로 봐줬으면 좋은데."

최윤정의 호 우여(羽如)는 깃털처럼 날아오르고 싶은 작가의 자유의지가 담겨 있다. 이 자유가 어찌 작가 혼자만의 꿈이랴. 아직도 집안에만 있는 둘째 언니가 바깥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그리고 장애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더 나아가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황동규 · 윤동주 시인을 존경하는 최윤정 작가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글, 고마워할 줄 아는 글을 쓰고 싶다.'고.

그녀의 문학적 소망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기도

낮아지는 언덕길
야윈 눈길 마주치면

시린 가슴 못 잊어
깊은 밤 두 무릎 꿇는다

몸 바쳐
사랑했던 부활
천년의 삶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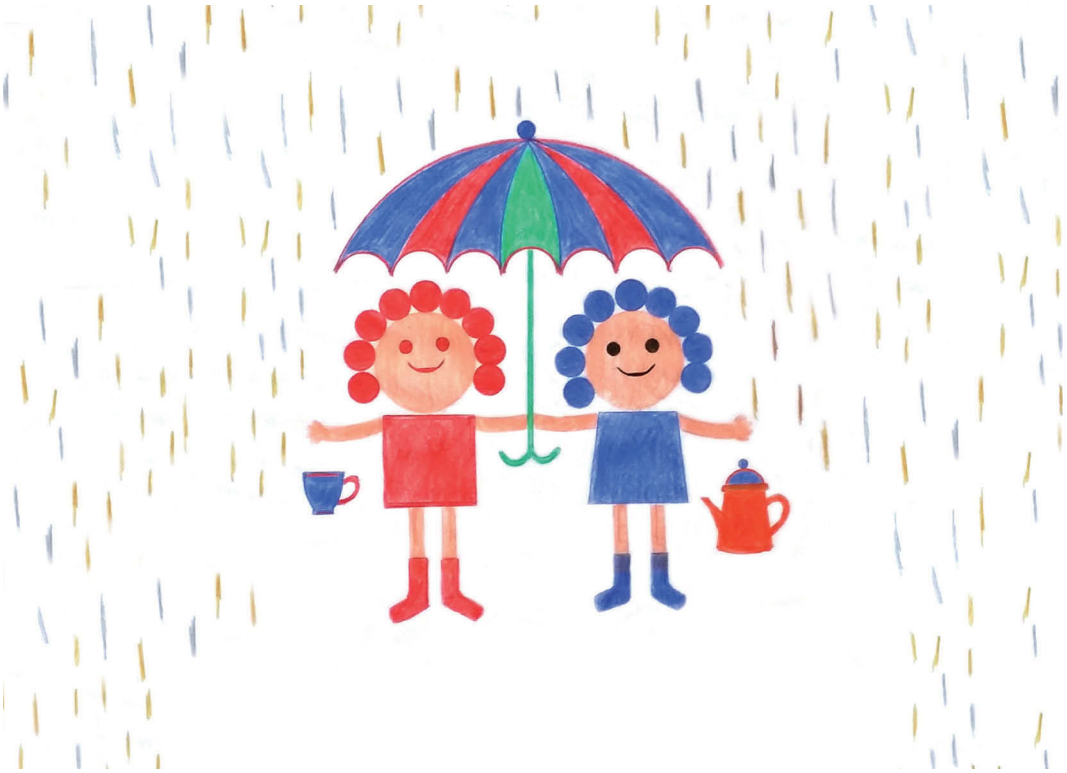
풀잎은

수면 위에 달빛이 비친다
촉촉이 아침을
다듬는 이슬이 건반에서
통통통
건너고 있다
풀잎은 가수처럼 노래를 부른다

다섯 식구

하늘에 떠 있는
큰 별 둘 작은 별 셋
사랑으로 모여서 식구처럼 지내더니

나란히
한 줄로 서서
다섯 식구 되었네



철새

울지 마라 달래면서
날아간 철새들
오늘도 네 이름 부르다가
그리워한다

네 등에
내가 타고서
사계절을 부둥켜안는다

작은 아낙네

보이지 않았던 볕 창문을 열었더니
별난 세계 신기한 듯 땅거미 넋 잃는다

발밑에
어둠 내리고
눈 뜨고서 보지 못한

뜨겁게 잘못 비는 아주 작은 아낙네
상처 난 멍든 시간 그 심장 안아 본다

사모의 숲

그리움이 가득히
싸여 있는 사모의 숲

하얀 별이 쏟아지면
그대 자취 찾아서

둥그런
태양이 누운
첫 새벽 기도하리

최윤정

2016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학(전공)
2020 숭실사이버대학교 졸업
2021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강사 자격증 취득
2023 동료 상담가 활동
솟대문학, 은평시창작, 초우문학 회원

수상
1993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가작
2003 자오문학상 우수상
2010 미술 공모 입상(화가협회 등록)
2017 화백문학 등단

저서
1996「그리움은 안개가 되어」
2001「또 다른 그리움」
2003「그리움은 영원히」
2011「휠 앤 필」
2017「고양이」
2018 2인 시조시집「종이학」
2021 시화집「다섯 식구」

미소 화장품 디자인

미술

異常과 理想 사이의 작가 김환

異常하다

김환은 1991년생으로 올해 32세이다. 그가 태어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듯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는 평범한 삶을 갈망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붙어 버린 그 이상함을 떼어 버리기 위해 현대의학에 매달렸다. 3년 동안 전신 수술을 하였고, 15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다. 도대체 그에게 붙어 있는 이상함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것일까? 초산이라서 양수가 터진 채로 시간을 보내다가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아기는 미숙아였기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고열에 시달렸던 것이 아기를 뇌성마비로 만들었다. 뇌성마비의 특징인 제멋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바로잡고,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수술 후 무료한 병원 생활의 유일한 낙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거의 낙서 수준이었지만, 부모님은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었다. 입원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주로 그렸다. 아마도 병원 밖 세상에 대한 동경에서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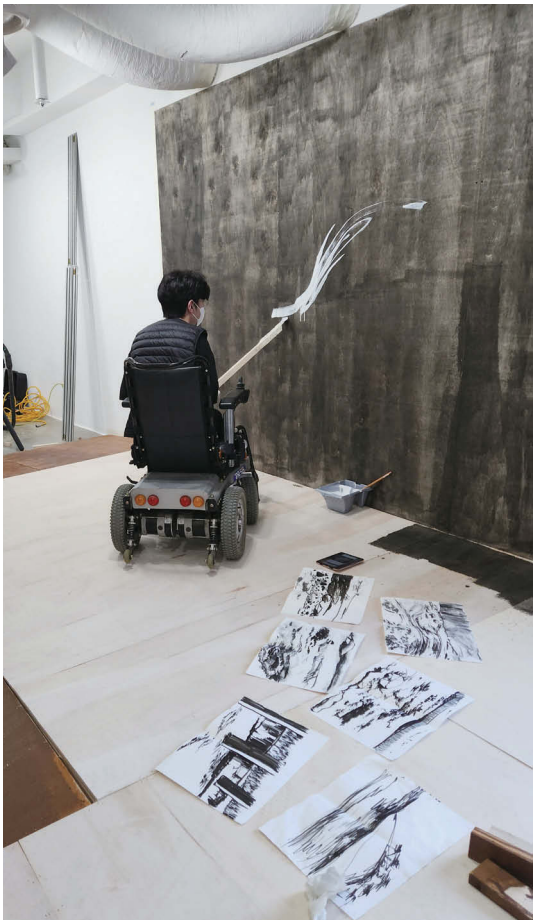
어린 환에게 병원은 무서운 곳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은 다름 아닌 학교였다. 그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 아니라 도시 같지 않고 순박한 작은 지방도시는 이상하다는 표시를 노골적으로 하여 상처를 주었다.

엄마 등에 업혀 등하교를 하는 환을 아이들은 가까이하지 않으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 그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편안했다. 그의 그림을 힐끗 본 몇몇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유행하던 만화 캐릭터와 권총 같은 무기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은 침을 튀기며 만화 캐릭터 대사를 외치기도 하고 총을 쏘는 시늉을 내며 그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어느덧 학교에서 그림 잘 그리는 학생이 되어 사생대회에 많이 나갔다. 그는 이미 6학년 때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할 만큼 자기 길을 일찍 정했다. 그런데 혼자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 가지고는 화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즈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학원에 등록을 시켜 주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휠체어를 밀어 주었다. 그는 학원에 다니며 수험생 형들의 밑그림을 그려 주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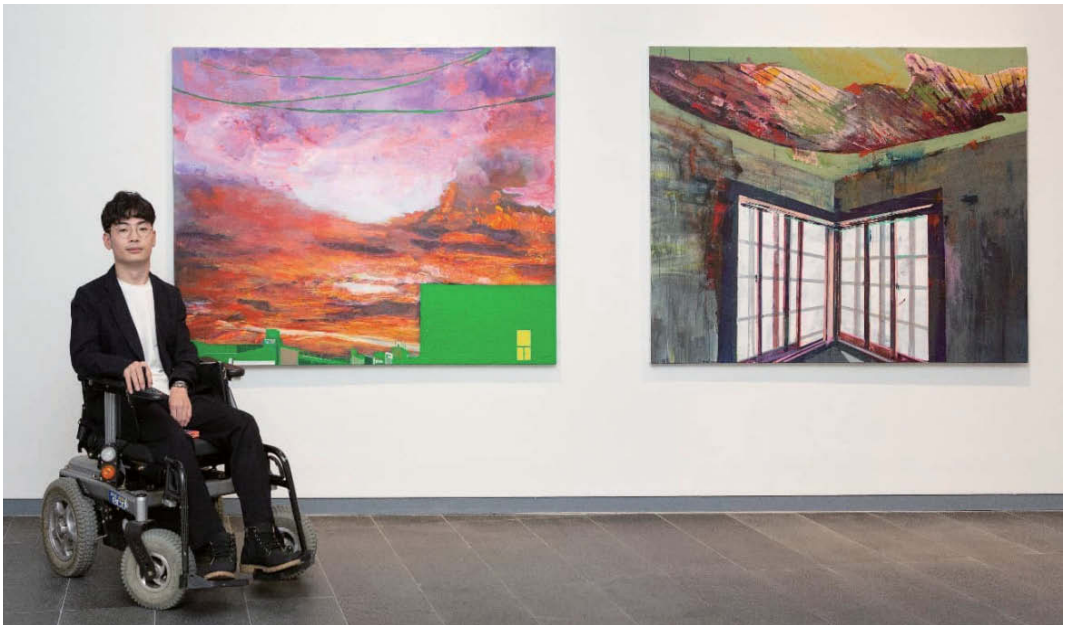
나를 찾아서

김환은 태어나서 20세까지 춘천에서 살았다. 강원대학교 미대에 합격을 했지만 재수를 했다. 부모님은 미대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재수를 허락하였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전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이 재수를 택한 목적은 부모님 생각과는 완전 달랐다. 그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집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리적인 독립을 해야 심리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있기에 대학을 대전에 있는 목원대학교로 정했다. 목원대학교가 장애

인 우수대학이라고 하여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건만 막상 입학을 하고 학교에 가니 어려움이 많았다. 1학년 수업을 듣는 미대 강의실은 가건물이라서 화장실에 가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다. 부모님은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못마땅한데다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다시 미술을 전공하자 한숨을 쉬셨다. 환은 부모님한테 손 내밀지 않고 살기 위해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다. 2학년 때 교수님이 본교로 보내 주셨다. 김환 때문에 교사(校舍) 로테이션을 앞당겨 주신 것인데 그로인해 선배 학년이 가건물에서 1년을 더 보내게 되었다. 환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본교 캠퍼스 안을 빠르게 이동하며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은근히 그에게 압박을 주기도 했다.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동기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다. 군대에 간 것이다. 그를 도와주던 친구들이 어느 날 싹 없어져서 갑자기 불편을 느끼곤 했다. 선배들이 복학을 하면서 같은 학년이 됐는데 그 선배들은 그림을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는 화가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환도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을 따라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런데 대학원은 장학금이 안 나와서 부모님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언제나 아들의 결정을 믿고 지원해 주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지만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핑계도 없었고 앞날이 더욱 불투명했다.

동기들은 싼 곳에 작업실을 구해 동료 작가들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공모전에 응모하며 경력을 쌓아 가는데 월세가 싼 작업실은 영락없이 편의시설이 없어서 접근이 어려웠다. 같이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를 마치고 뒤풀이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기회도 없어졌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교수님 추천 소개로 대전에 있는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대학 간사로 일을 시작했다. 학장이 전맹이어서 문서 읽어 주기나 문서 작성 등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학장의 이동을 위해 운전도 하는 등 잡다한 일이 많았다. 보수는 학장의 근로지원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활비도 되지 않았다.

일을 시작할 때의 약속은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작품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을 하며 김환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많은 장

애인 분들을 만나면서 장애인의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 세계를 접한 것은 그의 나이 27세 때였다.

물론 첫 장애인 친구는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만난 룸메이트였다. 그 친구와 1년반 함께 지냈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어서 그 친구는 김환의 손과 발이, 그리고 그는 그 친구에게 눈 역할을 하면서 상부상조하던 관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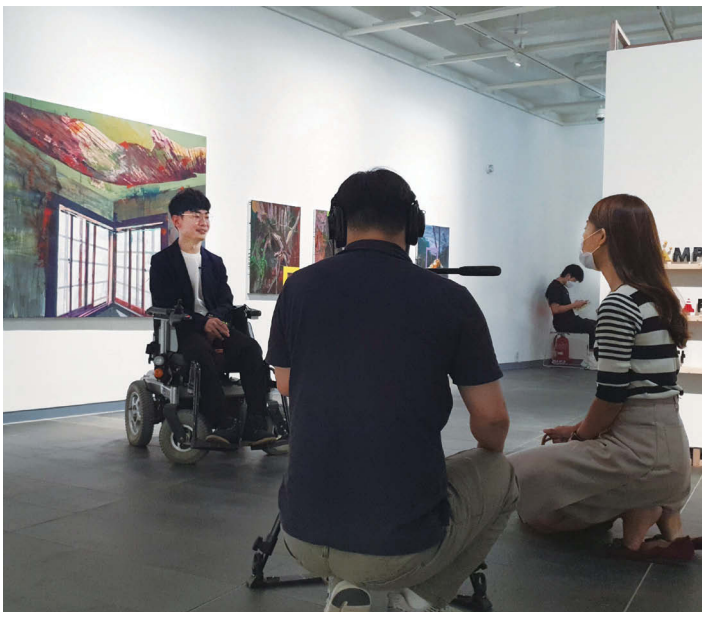
나의 길 위에서

대전에 있는 이응노미술관에서 아트랩대전으로 대전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1기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 그것이 김환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 다시 그림 세계로 돌아온 안도감이 생겼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였다. 토요일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교사였다. 그의 수업 목표는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것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 주었다.

VILLA DE WEDDING
CONVENTION

회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
식
1. 22.(화) 1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전 교육을 받고 회의도 하느라고 서울을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잠실에 장애인화가를 위한 창작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여 입주 작가가 된 것은 29세 때였다. 작가들에게도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잠실에서 장애인작가들을 만나면서 삶이 많이 달라졌다. 장애인작가의 유니크도 하나의 독창성이란 생각이 들었다. 대전에서 KTX를 타고 잠실로 오고가는 것이 힘들어서 8년 동안의 대전 생활을 접고 춘천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가지 못할 때는 스튜디오에서 쪽잠을 자면서 10기, 11기, 12기 3년 동안 잠실에서 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화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신체의 지각

비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며 신체의 한계로 만들어지는 괴리감 속에서 방황하며 만들어진 고민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캔버스에 표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김환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다.

이응노미술관 아트랩대전으로 갖게 된 첫 번째 개인전시회 제목 〈신체의 지각〉은 '우리의 몸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의 흠집같다.'고 말한 멜로퐁티 책에서 가져온 제목이다. 신체의 지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꼭 장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학교 시절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성소수자였다. 그 친구는 김환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다. 그런데 함께하면서 뭔가 다름이 느껴졌다.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작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그의 작품 속 이미지에서 드러났다. 어쩌다 성소수자 얘기가 나오면 김환도 대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혐오였다.

어느 날 술잔을 기울이다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친구가 김환에게 계속 고백하고 싶어하는 사인을 보냈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솔직히 자신의 정체성을 털어 놓았다. 친구 역시 자기가 원해서 성소수자가 된 것이 아닌데 온갖 비난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 친구를 통해서 김환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감추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도 작품 속에서 성소수자의 현실을 표현하곤 하였다. 장애를, 창문을 오브제로 프레임으로 표현했다면 창문을 통하지 않은 풍경의 오브제는 전봇대로 그 색은 성소수자의 깃발 색이다. 고향에 전봇대가 많았다.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전봇대가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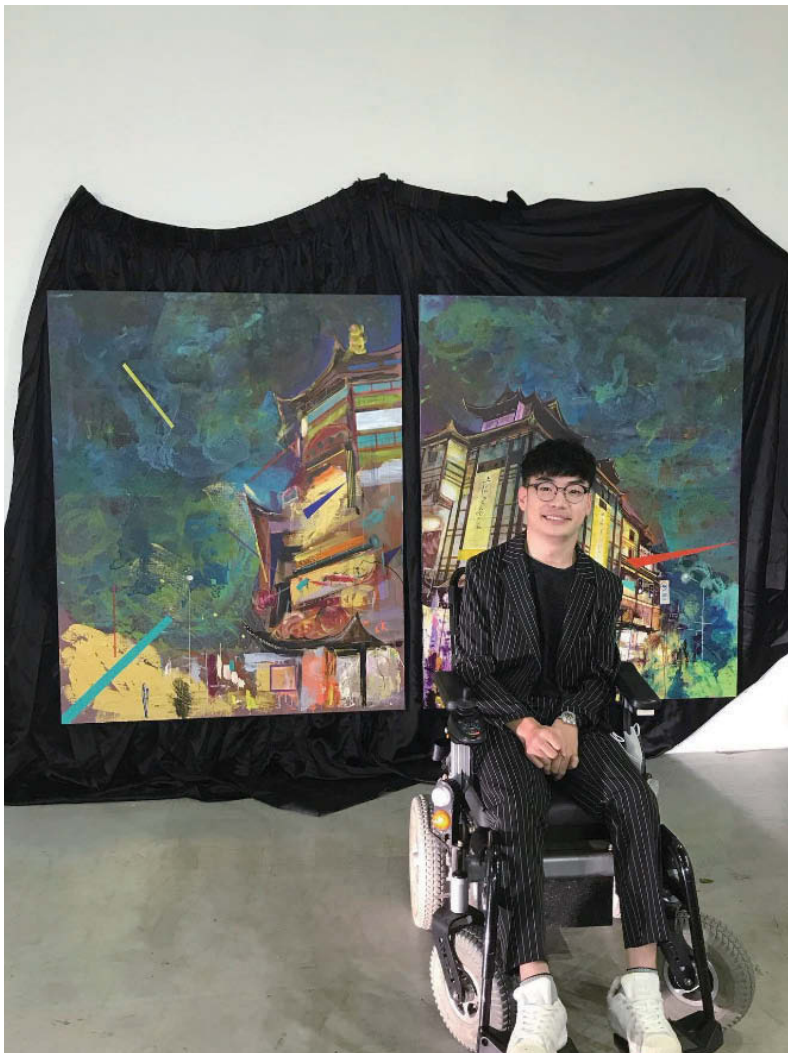
그가 일상에서 느꼈던 이상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전봇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김환은 나름대로 미술로서 사회운동을 했던 것이다.

나의 길이 평범하기를 원한다

그는 미술을 평생 하면서 전문작가로 활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특수성이 유니크함으로 표현되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은 행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제 실력에 비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정진하려고 하는 건데… 장애예술인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술 행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어장애를 딜어내기 위해 혓바닥 수술을 받았고, 말을 하는 연습을 지금도 한다. 긴장을 하면 경직이 와서 말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없으니까 자신이 더 강심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며 경력을 쌓아 가다 보니 고향인 춘천, 더 넓게는 강원도 내에서 초청을 받곤 한다.

"서울은 장애인예술에 대한 담론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지방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서 안타까워요.

꿈이 있다면 아래층 눈치 안 보고 새벽까지 작업할 수 있는 개인 작업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 멋진 김환이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싶어서 던진 사랑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실상 장애인의 연애라는 게 힘들잖아요. 여친은 있었지만 제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남잔데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복지 형태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작가에게 '창문틀(Frame)'이란

과거에는 저희 신체적 한계와 괴리감을 표현하는 소재였다면 이후에는 밖과 안을 이어 주는 소통의 주체였고 최근에는 공통의 대상을, 그러니까 실재하는 현재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김환 작가의 작품에서는 외부 세계로서의 풍경과 그것을 담아내는 액자와 같은 창이 존재한다. 스스로 풍경화가라고 소개하는 작가의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늘 창틀이 있다.

그렇게 그의 풍경은 그에게 있어 외부 세계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창문 밖 '풍경'만 있거나 갑갑한 창틀 너머 빛과 이미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던 그의 작품에 변화가 생겼다. 풍경과 창틀이 혼합되더니 급기야 창문 안쪽의 공간도 풍경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프레임과 빛만 남게 되었다.

_최창희(미학·장애인예술 연구자)

최근 실재 창과 빛을 이용한 아트 박스 작업을 하는 의도는

신체적 한계를 오판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동을 하는 행위가 큰 무리로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페인팅이 아닌 보다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연구하고자 함이며 보다 근본적으론 태양광에서 느꼈던 실재 감성과 더 나아가 물성을 재현하며 경험과 감정을 대중과 공유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둡니다.

'연결의 형상들: Shape of Connection 작업은

공통된 대상을 공유해도 서로 다른 큰 갭을 야기한다 생각합니다. 특수성, 장애, 다른 문화는 개성이 되었고 이 차이점은 나에게 개인사이자 공공화할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그렇기에 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김환 작가와 인터뷰를 하며 그의 이상은 하늘 위의 理想이 아닌 우리 현실 속의 異常을 평범함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공주 봉황동 수리치 다락방

그날따라 건물들이 하늘색이 되었다

새롬케어웍스

충남 태안군

중앙역 4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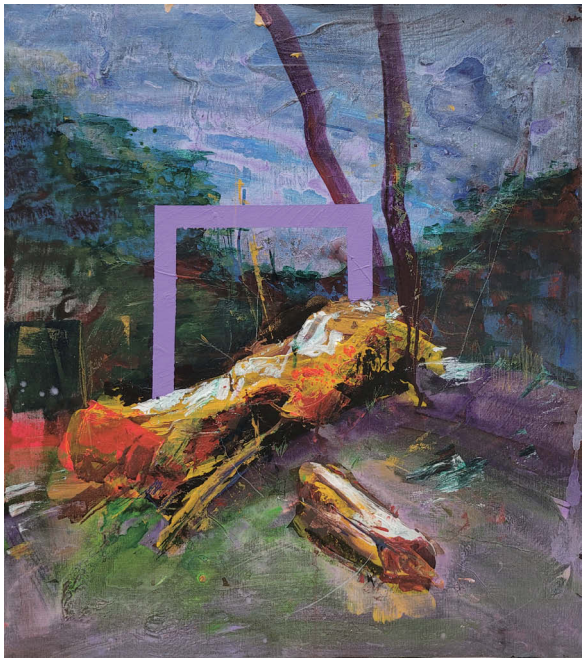
중국 상하이

중국 상하이

프레임

한라산국립공원 1

한라산국립공원 3



한라산국립공원 4

김환

목원대학교 미술 · 디자인대학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목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2019 춘천예술상 신인상, (사)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개인전
2022 Frame(서울, KT & G상상마당 홍대갤러리 5F)
2019 호박에 줄 긋는 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지만 맛있어요, 춘천미술관, 춘천
2019 신체의 지각,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서울
2017 아트랩 대전 소수자를 바라보는 소수자, 이응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룸, 대전
2016 부유하는 풍경(석사청구전), 우연갤러리, 대전

단체전
2023 연결의 형상들 Shape of Connection(서울, 신한갤러리 역삼)
2022 모두의 미술 '상+생'(강원,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
2022 제61회 춘천미술협회전 "전통의 재해석"(강원,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
2022 강원작가트리엔날레2022(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 및 진부시장 일대)
2022 〈제로썸씽zero-something〉(강원,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
2022 이음으로 가는 길 The Way to the Eum(No Limits in Seoul 2022 노리미츠인서울 전시 프로그램)(서울, 이음센터 2층) 외 다수

아트페어
2022 개나리아트페어(강원, 개나리미술관)
2021 십이지술(十二支術)(강원, 갤러리문)
2021 조형아트서울 PLAS(서울, 코엑스 B1, B2홀)
2020 조형아트서울 PLAS(서울, 코엑스 B1, B2홀)
2019 조형아트서울 PLAS(서울, 코엑스 B1, B2홀)
2016 대전국제아트쇼 2016 청년작가 특별초대전(대전무역전시관)
2015 아시아프ASYAAF(서울, 문화역서울284)

음악

재즈피아니스트 정명수의 이유 있는 도전

1985년 미숙아로 태어난 정명수는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었지만 그것이 신생아의 눈에서 빛을 앗아갈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신생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균 감염과 강한 빛의 노출로 시력이 점점 떨어졌다. 시력을 찾기 위해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다섯 살 무렵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어린 명수는 시력 대신 소리에 의지해 세상보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꼭 소리가 나는 장난감만 갖고 놀았다. 소리로 재미를 찾았던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익힌 소리에 대한 감각은 그를 음악에 빠지게 했다.

작은 건반과의 만남

다섯 살의 어느 날 명수는 엄마와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건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악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래도록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고 놀았다. 명수가 너무 좋아하자 삼촌은 그것을 조카에게 선물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악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때부터 어린 명수는 하루 종일 작은 건반 악기를 치며 놀았다.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8세 무렵, 피아노학원에 다니면서부터이다. 악보를 볼 수 없었지만 피아노 선생님이 음을 들려주면 명수가 따라 치는 식으로 피아노를 배웠다. 다행히 소리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아노를 익숙하게 칠 수 있었다.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청소년 시절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행사 요청이 있으면 가서 연주도 했어요. 꾸준히 피아노를 연주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신나는 일이었지요."

음원으로 그 당시는 테이프로 두세 번 반복해서 음악을 들으면 악보를 다 외울 정도로 음감이 좋았다. 급박하게 연주 요청이 들어오면 밤을 새워서 악보를 익히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쌓여 그를 음악인으로 만들었다.

연주하며 노래

재즈에 빠지다

명수는 한빛맹학교를 다니면서 안마를 필수 과정으로 배웠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시각장애 학생의 필수 선택이었다. 한빛맹학교를 졸업하고 삼육대 작곡과에 입학했지만 그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틈틈이 하는 안마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살다가 나란 존재가 그냥 잊혀지지는 않을까?', '작곡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기를 여러 차례, 고민 끝에 그는 일과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때부터 피아노만 쳤다. 연습실이 필요했는데, 누군가 실용음악학원에 가면 연습실이 있다고 하기에 물어물어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했는데 그곳에서 재즈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학원에서 재즈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재미있게 배우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학원 선생님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저 혼자 독학을 했어요. 밥 먹고 피아노 치고, 피아노 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루 10시간 이상을 피아노만 붙잡고 있었죠."

명수는 피아노는 물론이고, 기타를 비롯한 악기를 거의 독학으로 배웠다. 물론 처음 시작을 도와준 선생님들은 있었지만 익숙해질 무렵이면 유학을 가거나 학원을 옮겨가거나 하여 인연이 오래가지 못했다. 하나하나 혼자 터득한 만큼 음악에 대한 애착이 크다.

슈퍼스타 정명수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워 보고 싶어서 2007년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했다. 그것도 일반전형에 수석으로. 그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의 실력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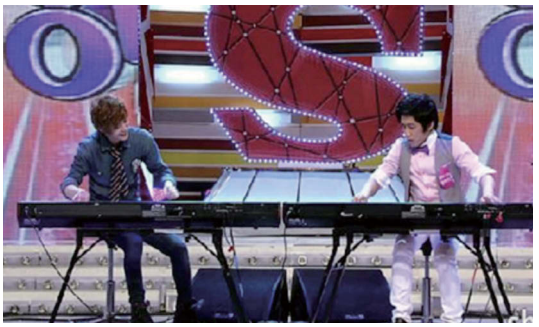
"대학에 와 보니 고마운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악보를 보지 못하는 저를 위해 친구들이 악보를 들려주고, 시험 볼 때는 대필도 해 주고…."

그는 장애인 인터넷선교방송인 희망방송 소속 '희망새 중창단'의 앨범으로 데뷔했다. 시각장애인 3명과 지체장애인 한 명으로 구성된 희망새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교회와 선교단체, 보육원 졸업식, 대학 채플 시간에 축하공연을 하였고, 교도소에서도 반주를 했다. 그는 피아노뿐 아니라 드럼과 기타 연주 그리고 노래 솜씨도 수준급이다.

그러다 정명수는 난생처음 2010년 12월 10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정명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개인 연주회를 가졌다.

"분위기 탓인지 저도 좀 흥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백여 명의 관객의 열기가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한 곡 한 곡 연주할 때마다 박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 주셨어요. 무대 위에서 정말 행복했지요."

정명수는 공연 수익금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아 안암환자 수술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를 했다. 스스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보람이 컸다. 그 공연이 계기가 되어 2011년 봄에는 SBS TV 〈스타킹〉에 출연을 하여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는 극찬을 받았고, 그해 가을에는 tvN 〈슈



〈스타킹〉 신지호 합주

〈스타킹〉 열창

퍼스타K 3〉에 출연하여 심사위원과 시청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 2014년에 시각장애인계에서 음악의 신동으로 통했던 친구들과 '더블라인드'라는 4인조 밴드를 구성하여 연주와 노래 그리고 유연한 율동으로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더 큰 꿈을 향하여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은 기본이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연을 하기 위해 음향장비를 설치하다 전기에 감전될 뻔한 적도 여러 번, 지하철 역사에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소리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옆 사람 건너는 소리에 따라 걷다가 차에 치일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수없이 밀려왔다.

그럴 때마다 정명수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좌절이나 포기는 사치였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음악 활동을 하느라고 2007년 입학한 대학을 2015년에 졸업했다. 그리고 4년제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하여 2022년에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에 입학하여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강단에 서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피아노 전공이지만 실용음악을 더 연구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는 혼자서 독학으로 익혔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제도권 안에서 공부를 하

좋은이웃 카페 공연

면 앎에 대한 갈증이 쉽게 풀리지 않겠어요.”

8년 동안 연애 끝에 2022년 5월 28일에 결혼을 했고, 올 3월 중순이 예정일이어서 곧 아빠가 되기 때문에 태어날 딸아이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한번 더 일으켜 세웠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공연을 하러 간 교회에서였다. 그녀가 먼저 정명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물론 음악팬으로서… 그 후 그의 공연에 그녀가 찾아와 주어 만남이 이어졌다.

2014년까지 그렇게 팬으로 지내다가 정명수가 먼저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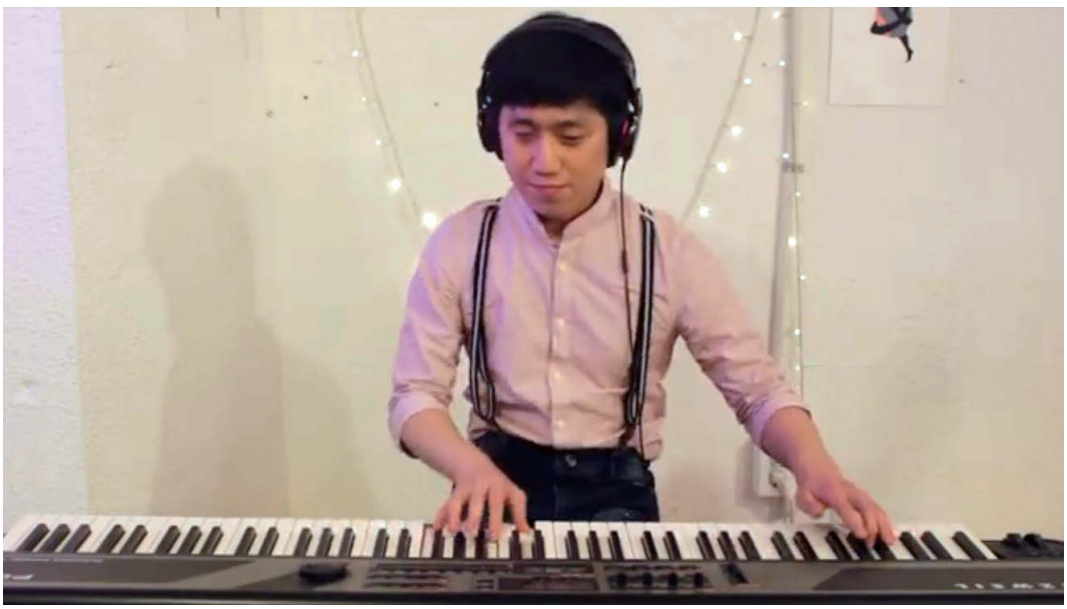
"우리 연애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쌓아 갔다. 비장애 여성에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결혼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다. 대학원에 입학하고, 시각장애인 특화 종로인명자립생활센터에 취직도 했다. 시각장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악교육도 실시한다. 피아노, 노래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친다.

공연도 계속 다닌다. '훈훈한 그 남자의 하루 이야기'로 유명한 김원식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훈남하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을 하고 있다. KBS 장애인 앵커 1호인 이창훈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증을 획득하여 강의를 하고, 정명수는 중간중간 음악공연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인기가 좋다.

음악인 정명수

"재즈피아노는 한 달 동안 학원에서 레슨받은 게 전부예요. 하지만 밤낮으로 음악을 듣고 재즈피아노를 두드리다 보니 어느덧 음악인이 되었어요."



더블라인드 청춘마이크

그는 연습벌레다. 밤새 연습하다가 피아노 덮개에 엎드려서 쪽잠을 자기가 예사였다. 정명수의 감성은 꽤 독특한 구석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절제와 세련된 감성이 사운드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동네 어린이들이 금방 뛰어놀 것처럼 경쾌하기도 하다.

"대중이 편히 즐길 수 있는 재즈를 만들려고 늘 고민합니다. 재즈피아노가 제게 위로가 됐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음악 활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연주는 물론 작곡, 편곡, 녹음작업까지 하다 보니, CD 한 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할 줄 알게 되었다고 그는 오히려 고마워한다. 음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음역 그래프를 보면서 편집을 하면 편한데 일일이 소리를 다 들어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뿐이다.

그는 1985년생 늦깎이 대학원생이고, 아빠이지만 음악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천생 음악인이다. 첫 콘서트를 계기로 우물 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듯이 음악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공연의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명수는 자신만의 CCM 앨범을 만들고 싶고, 프로듀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다는 꿈으로 생동감을 잃지 않는 만년 청년이다.

신나는 예술여행 마로니에 공원

정명수

2022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입학
2022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2015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수상
2017 장애인행복나눔 페스티벌 행정안전부 장관상
2016 청춘마이크 영아티스트 어워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4 아시아나 드림페스티벌 오디션 우승

음반
2017 정명수 CCM 1집
2016 더블라인드 3집
2010 희망새 2집

공연
2019 뮤지컬 '기타리스트' 특별 출연
2015 뮤지컬 '락앤롤' 시즌 2
2014 일본 요나고현 제14회 전국장애인문화예술제 참여
2013 더블라인드 홍대 롤링홀 '라디오119'
2010 정명수 재즈피아노 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등 다수

대중예술

연출자 임지윤의 반전 매력

장애인예술 분야에서 전문 연출가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연출은 물론이고 기획과 연기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집필할 수 있는 인재인 임지윤을 만나면 재주만큼이나 수줍은 당당함으로 장착된 아주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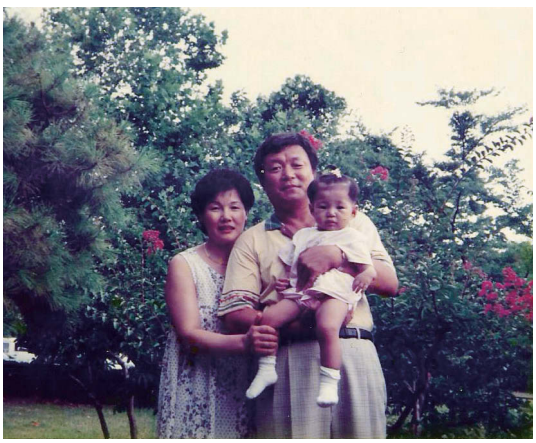
올해 30세가 된 임지윤은 30년 동안의 삶이 너무나 버라이어티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모두가 다르게 태어난다

임지윤의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2명, 언니 1명이 있다. 막내여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키가 작고, 두 팔이 짧으면서 두 손목이 90도로 꺾여 있고 엄지손가락이 없었지만 그것이 장애로 느껴질 만큼 불편하지 않았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선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택한 것은 그녀가 공연에 관심이 많았고 공연 연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예종에 장애인이 입학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녀는 운 좋게 2013년에 합격하였다.

집이 대구여서 서울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막내딸을 데리고 살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대학생이 되었으니 손 수술을 받자고 하셨다. 보통 여자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임지윤은 굽어진 손을 성형하였다. 굽어진 것을 펴고 둘째 손가락을 떼어



두 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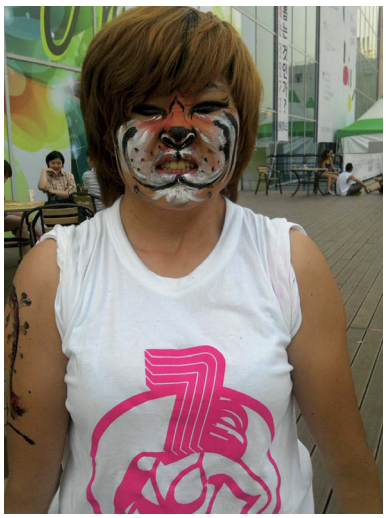
유치원 졸업 때

KBS 〈인간극장〉

서 엄지손가락을 만들었다. 임지윤은 눈에는 손이 엄청 멋있어졌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장애였다.

한예종 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살면서 한예종 연극원 연극학과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했다. 연극 기획에 대해 공부하다가 부전공으로 연출 공부를 하였다. 연극원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성취감을 찾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녀는 공연이 너무 좋아서 한 학기에 한 번만 하


20세 축제 때

23세 생일

대학교 졸업사진

면 되는 공연을 두세 번씩 기회가 될 때마다 하면서 능력을 키웠다.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하다가 장애를 떠올리게 되었다. 장애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장애 관람객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에 관한 연구—연극 · 뮤지컬 공연을 중심으로'를 202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 논문으로 제출하고 졸업을 하였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대구에 내려가지 않고 자취를 하며 연출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1년과 22년에 자신이 기획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연극인으로

지난 2021년 〈임지윤의 하루〉로 관객을 만났던 임지윤이 〈임지윤의 하루 2〉로 돌아왔다. DJ유니의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의 하루' 게스트로 초대된 임지윤은 장애 · 입양 · 여성 · 퀴어의 당사자성을 중심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임지윤의 하루〉 시리즈는 연극이란 허구의 이야기를 배우의 연기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배우가 어떤 인물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무대에 선다. 다시 말해 임지윤이라는 현실의 인물이 곧 〈임지윤의 하루〉의 배우이자 연출자이고, 작가이다.

무대는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다. 실제 라디오 방송처럼 공연도 진행자와 게스트가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된다. 물론 진행자인 유니와 게스트인 임지윤 모두 임지윤이 맡는다. 게스트 임지윤은 현장에서 직접 말하고, 진행자인 유니는 모니터 속 아바타로

〈임지윤의 하루 2〉 포스터

2016년 장애청년드림팀 미국에서

2016년 장애청년드림팀

등장해 미리 녹음된 대사를 하는 방식이다.

임지윤이라는 사람이 1시간 동안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진행자에게 연인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하고,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어느 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비장하거나 숨겨 왔던 사실을 고심 끝에 털어놓는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그가 가진 소수자성은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임지윤은 짧은 무용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축구공으로 트래핑을 해 보이며 특유의 덤덤하면서도 밝은 목소리와 스스럼없는 태도로 공연을 능숙하게 이끌어 간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까닭은 '편안한 관람을 위한 공연(Relaxed performance)을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여러 사람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으로, 관객석이 완전한 암전이 아닌 상태에서 공연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공연 중 입

2018년 전주

2018년 제주도

장과 퇴장도 자유롭다. 관객들이 작은 소리와 몸짓도 조심하며 오로지 무대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공연에 익숙하다면 낯선 풍경일 수 있다. 덕분에 무대와 관객석 사이 위계는 해체되고, 관객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지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 때 대구에 내려가면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신다. 늙어 가는 부모님을 보면 자주 내려와야지 하면서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가끔씩 거르곤 했던 것을 후회하곤 하던 5년 전 어느 날 아버지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 아버지는 술이 약간 취하셔서 어렵게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셨다.

"이제는 너도 아는 게 안 낫겠나."

아버지는 지윤이 생후 8개월에 입양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이가 드시니까 자식의 뿌리는 알려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윤은 딛고 선 땅이 뒤흔들리는 듯한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식구들과 닮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고, 부모 형제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고, 한없이 울기만 하는 엄마에게는 '나 괜찮아. 그게 뭐….'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엄마를 위로해 주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엄마한테 물어보았다.

"엄마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왜 데려왔어?"

"자꾸 눈에 밟혀서 자꾸…."

엄마는 가톨릭 신자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버려진 장애아들의 보육시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두 팔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건강 상태도 안 좋았지만 아기가 살겠다고 가쁜 숨을 쉬며 우유를 열심히 먹는 모습이 집에 와서도 자꾸 떠올라서 다음 날 일찍 보육원에 가곤 했다.

생모라는 존재는 그녀를 뒤흔들어 놓았다. '생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그것이 정말 궁금했다. 나쁜 상상은 더 나쁜 상상을 생산했다. 아플지언정 진실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친부모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덮어둘 수 없기에 생모를 찾아나섰다. 대구 부모님 모르게 혼자서 보육원 이름 하나만 들고 25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탐색해 갔다. 긴 수소문과 시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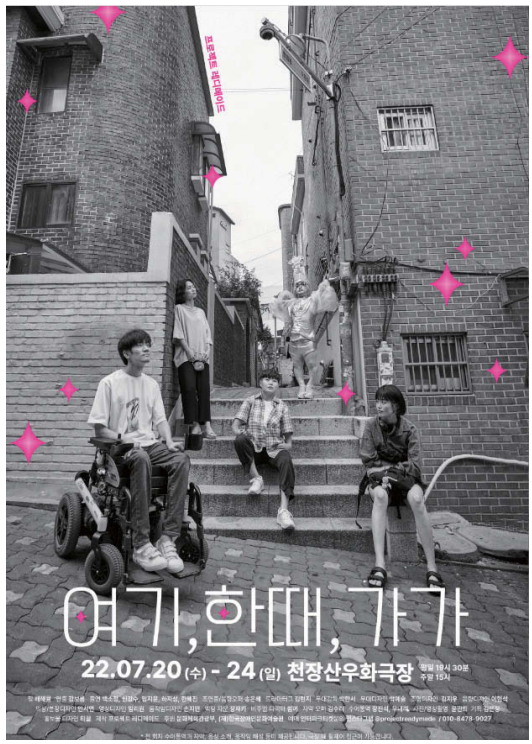
2020년 임지윤의 하루 공연 후

2020년 태권도 운동 때

유튜브

KBS 〈인간극장〉

오를 거쳐 대구에 있는 생모 친정 식구들과 접촉이 되었다. 생모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모에게 연락을 했다.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모는 21년 10월에 그녀에게 전화를 주었다. 살아 있었냐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그 후 메신저로 연락을 계속하다가 생모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22년 9월 4일 한국으로 왔다. 생모를 만난다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지금의 부모님이었다. 생모를 찾는 딸이 애틋하기도 하고 생모를 찾고 싶어하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혈육을 만난 딸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다.



〈여기, 한때, 가가〉 포스터

한국에 온 생모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 대구에 있는 동안 지윤도 대구에서 생모와 이모, 외삼촌들을 만났다. 어색함보다는 진실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간의 사연은 이러했다.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첫째를 낳았을 때 산후 뒷바라지를 해 줄 사람

이 없어서 고생을 했었기에 두 번째 아이는 친정집에서 해산을 하려고 한국에 와서 해산을 했다. 아기가 호흡기 질환으로 생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친정 식구들이 나서서 아기를 포기했던 것이다. 출산 후 너무 힘든 탓인지 생모는 2년 정도 기억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아직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월 생모의 초대로 미국에 가게 되었다. 떠나기 전 엄마가 약간 불안해하셨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초대해 주니까 가는 거야. 아직 할 얘기가 남아 있어서… 영영 떠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녀는 키워 주신 부모님이 좋고, 연극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다.

미국에 가서 세 살 위인 언니도 보았다.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응어리진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윤은 생모를 찾았을 때 키워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입양하여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키워 준 부모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KBS TV 인간극장 〈지윤 씨의 두 어머니〉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것이 키워 주신 부모님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파라스타 동료들

제주도에서

"다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각자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저만의 방식을 너무 다르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만의 매력을 아시니까 저는 그런 매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서로의 얘기를 나누면서 편안해지는 것이 저는 좋아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물으니 아주 예술적으로 답변했다.

"제가 공연을 하면 그게 장애인예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장애예술인인 것도 맞지만 그냥 예술인도 맞기 때문에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임지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 전공, 연출과 부전공 졸업

현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유튜브
2022 잇다 〈장애에 대한 시선〉 인터뷰
2022 서울퀴어페레이드 〈퀴어예술가〉 인터뷰
2021 낭독 뮤지컬 〈라스 올라스〉 오디오북 Hear, See: 인터뷰어ver. 출연
2021 이음온라인 〈예술이 뭐라GO〉 출연
2021 〈같이 잇는 가치〉 '잇터뷰' 임지윤 연출편 출연
2021 〈웹진연극in_200호〉 '렛미인트로듀스' 임지윤 출연
2020~현재 채널 〈유니의 시간〉 운영 중

공연
2022 〈임지윤의 하루 2〉 작연출 및 출연
2022 〈여기, 한때, 가가〉 출연
2022 A+페스티벌 〈그 집 모자의 기도〉 출연
2021 아시아연출가전 〈여기, 한때, 가가〉 출연
2021 〈임지윤의 하루〉 작연출 및 출연
2021 제4회 페미니즘연극제 〈여기, 한때, 가가〉 출연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6

사랑을 받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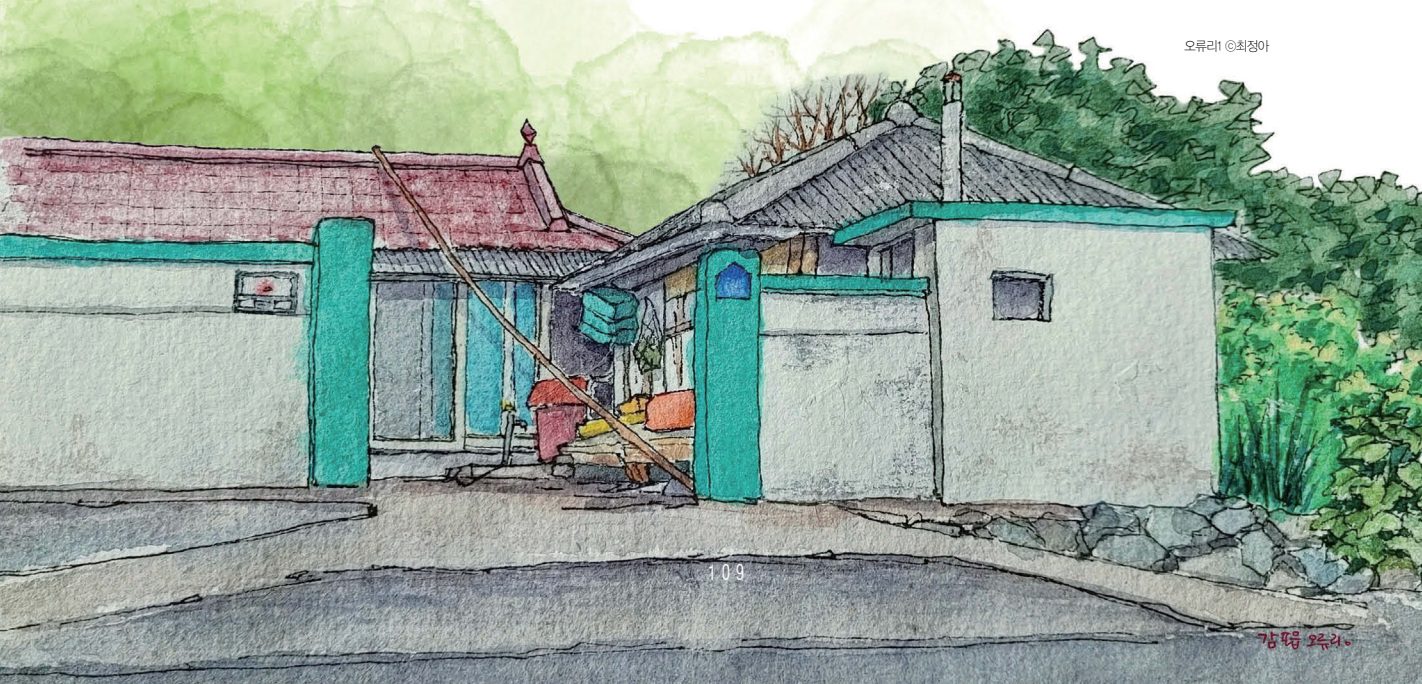
©강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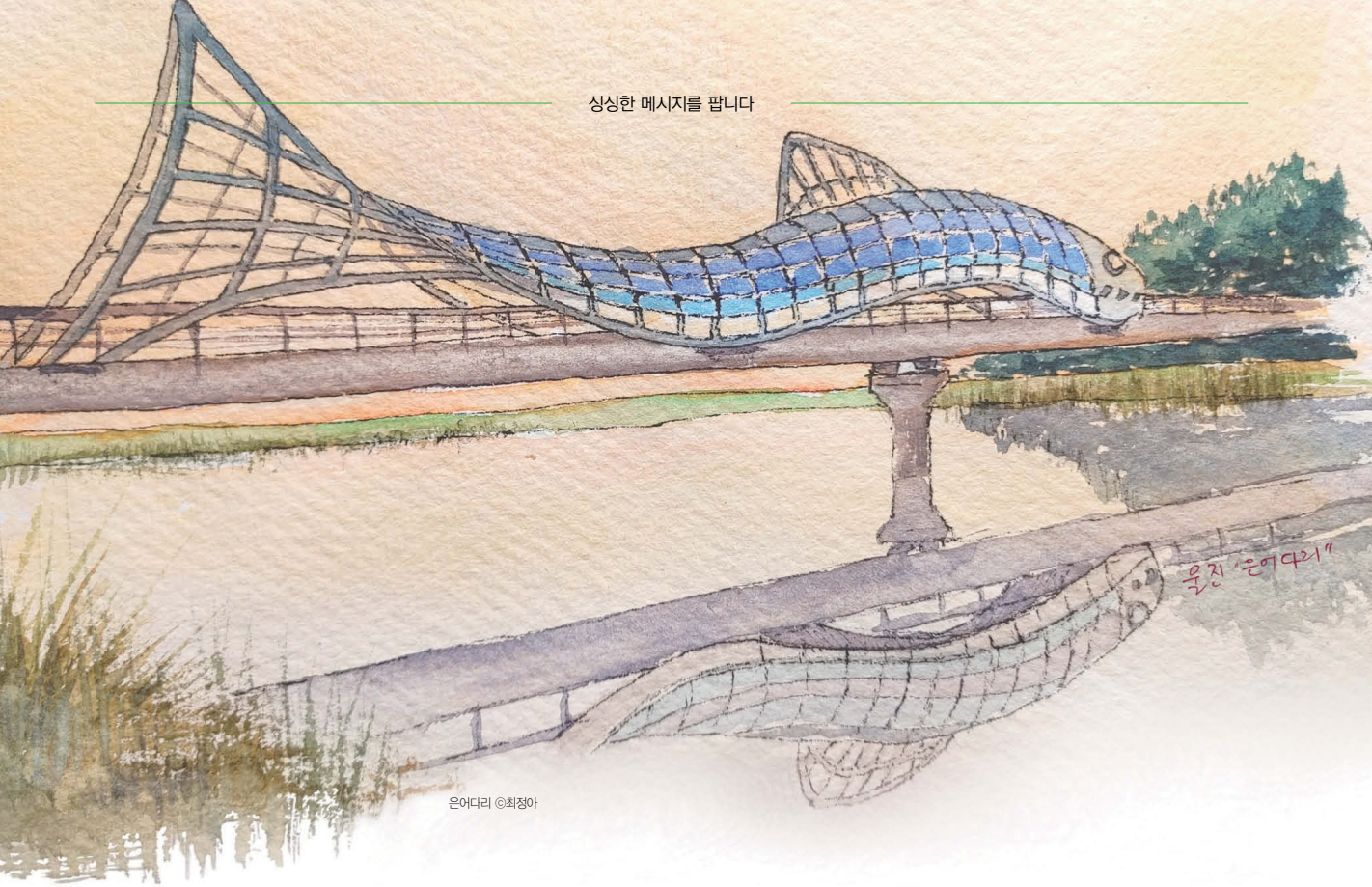
정치계에서 쏟아내는 막말로 언어문화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이때 감성과 이성 그리고 상식이 단단히 압축된 아주 짧고, 매우 쉽게 그리고 공손히 설득시킬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짤글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는 코너이다.

이들 메시지는 자신의 소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며, 구어체로 써서 큰 소리로 읽으면 메시지의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기로부터 시작

동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자유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구요
자신의 삶이 얽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은어다리 ©최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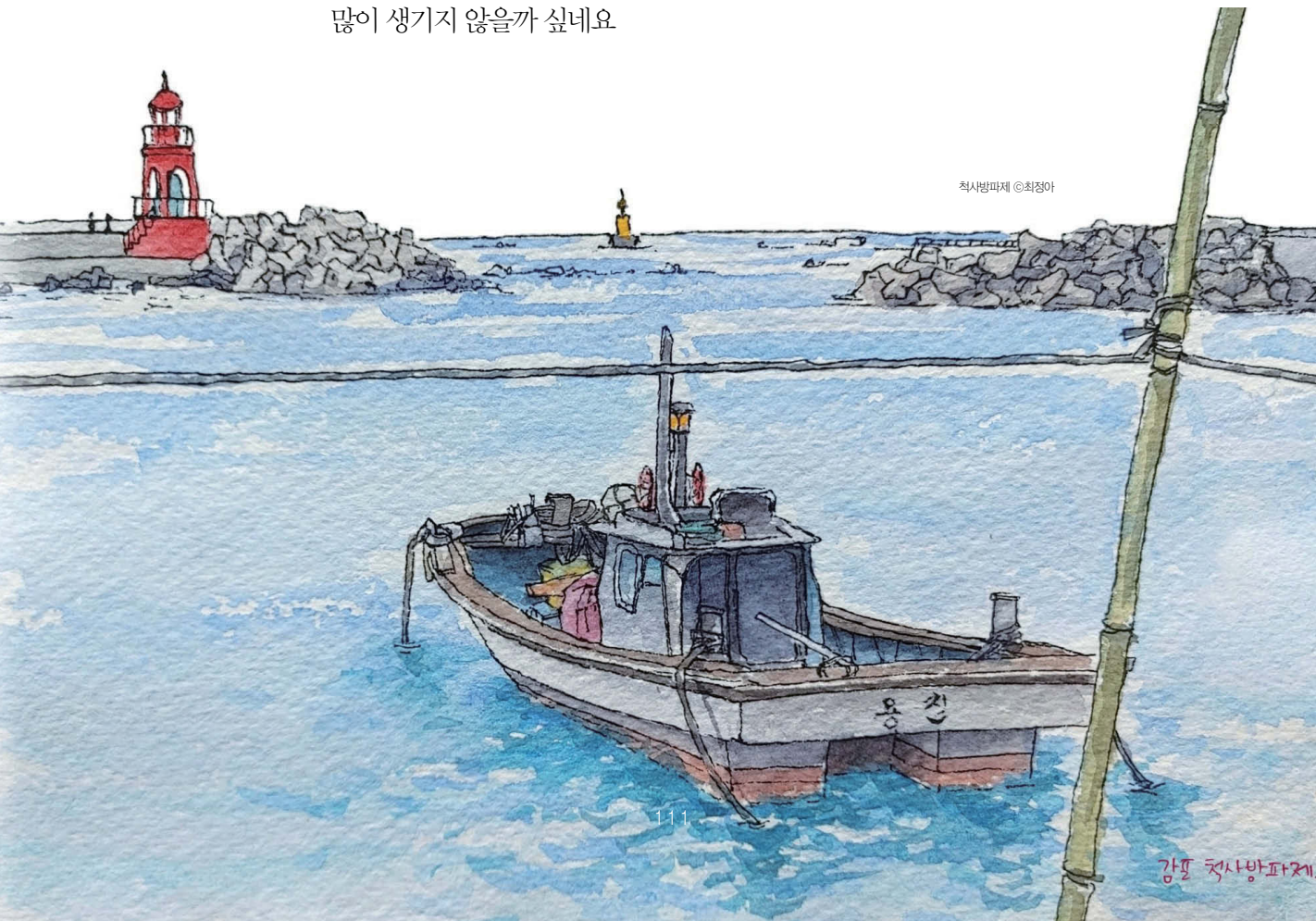
진정한 평등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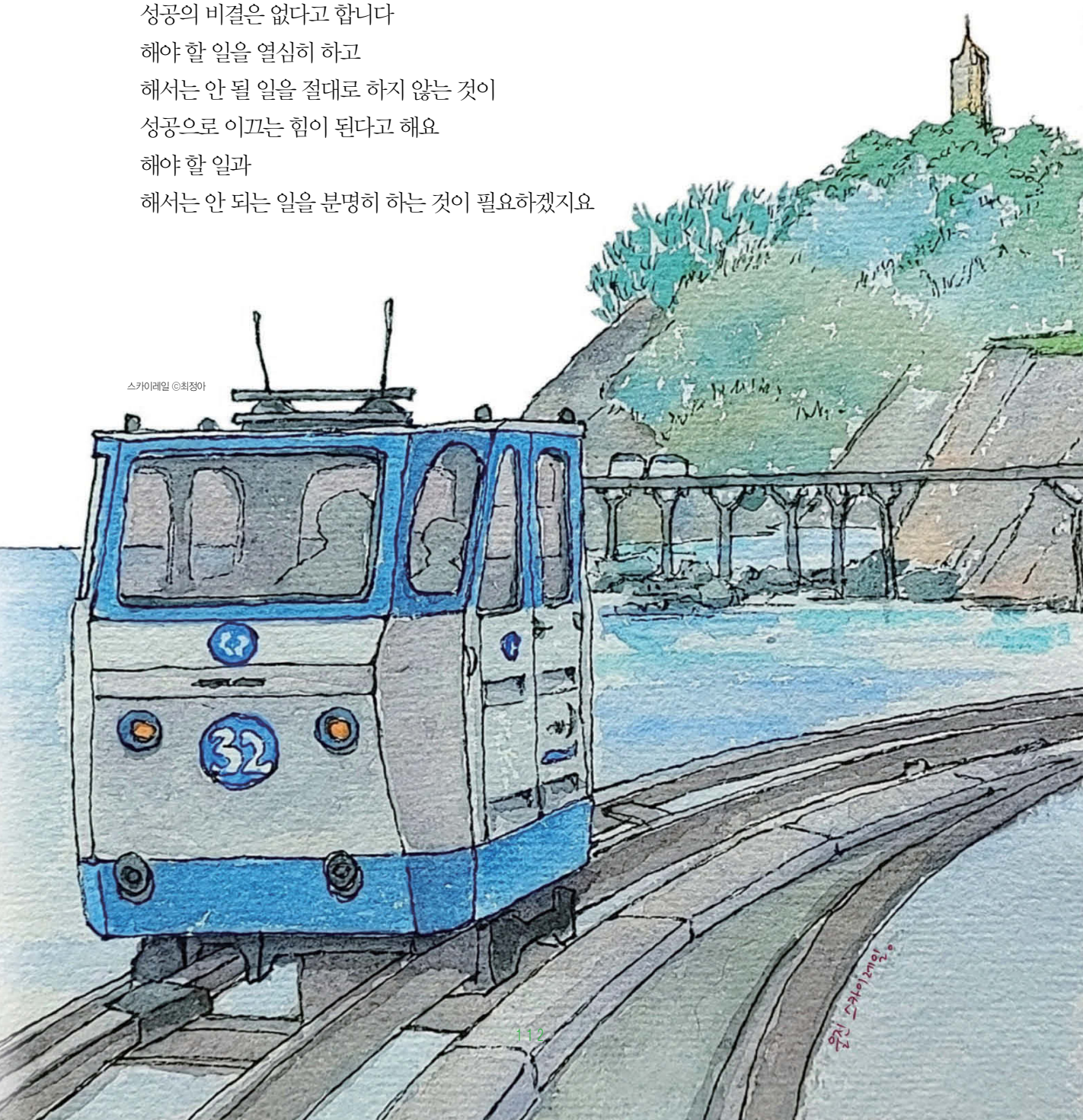
사랑을 받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사랑스러워지는지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첫째,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미소를 짓는 거래요
자기 자신에게 웃어 주어야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건네주라는 것은
그 칭찬에 상대방이 당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죠
셋째, 잘못을 인정하고 잘한 일에 침묵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당장 실천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성공의 비결은 없다

흔히들 성공의 비결을 묻곤 하는데요
성공의 비결은 없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해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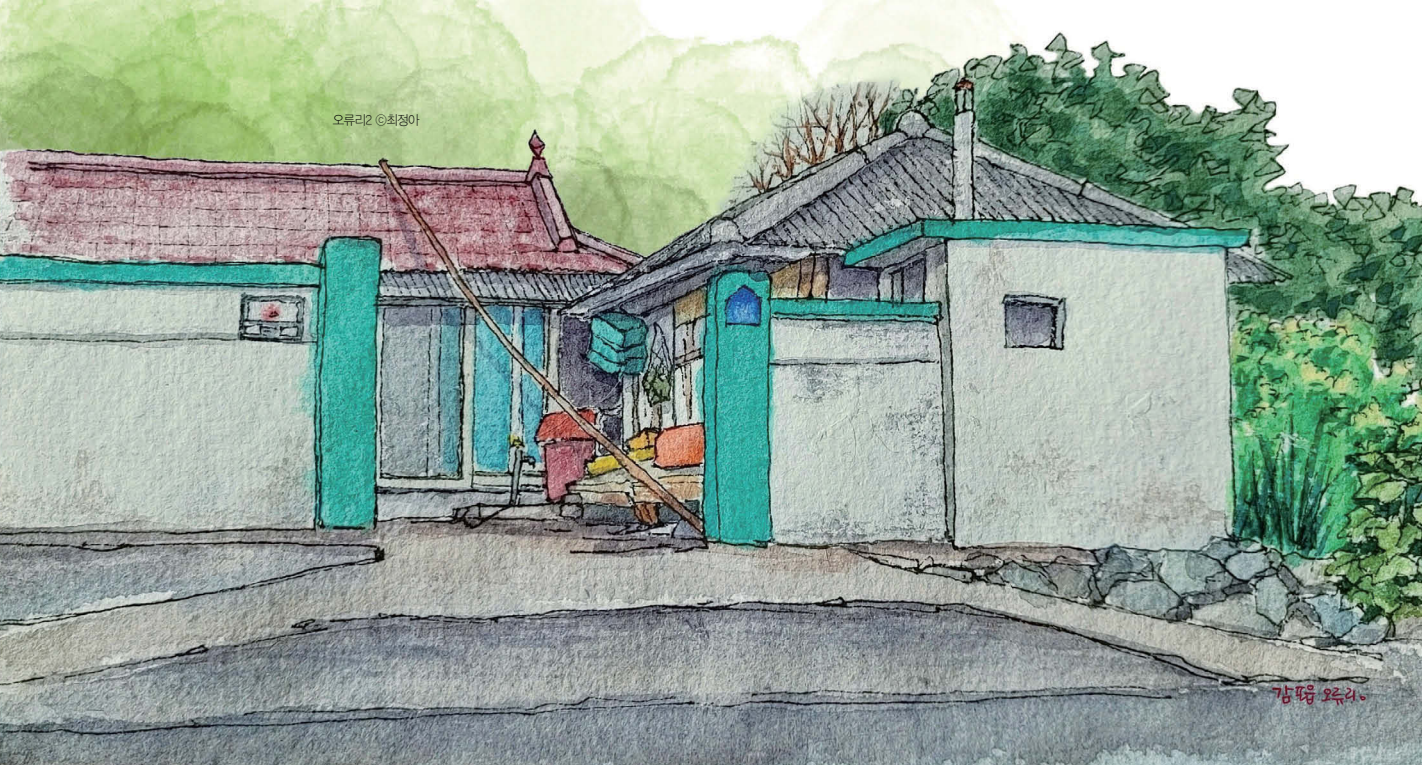
스카이레일 ©최정아

자기 수양이 필요

행복은 깊이 느끼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줄 아는 능력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행복인데요
자기 발전을 했는데도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선 자기 수양이 필요한데요
자기 수양을 위해서는 깊이 느끼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러스트 **최정아**

구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
김천시에 BF주택을 짓고 민화, 채색화 등을 배우고 일러스트 작업을 하며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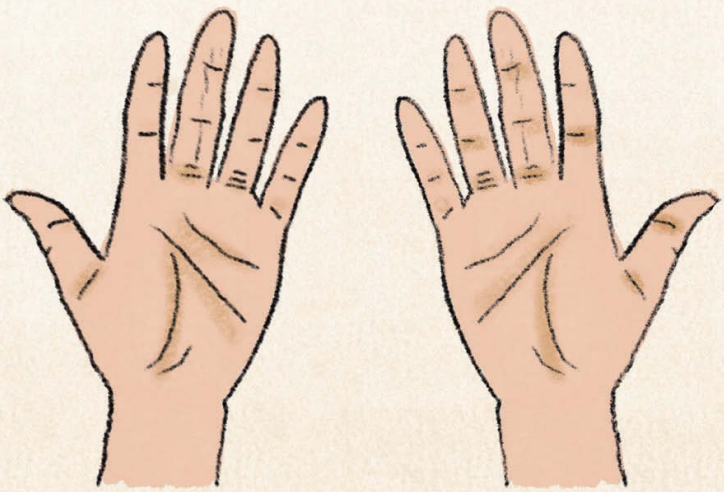
오류리2 ©최정아

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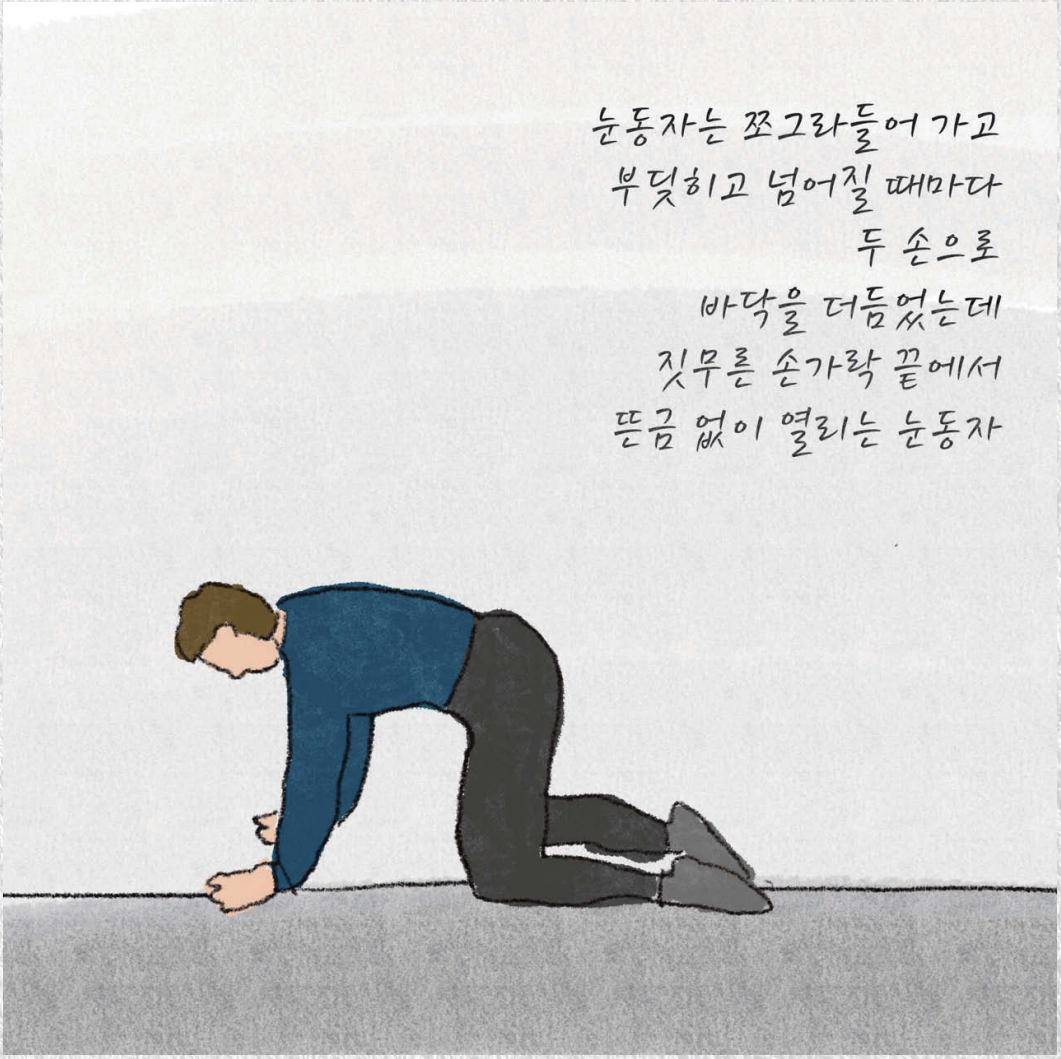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손병걸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살아왔다

시력을 잃어버린 순간까지
두 눈동자를 굴렸다


눈동자는 꼬그라들어 가고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는데
짓무른 손가락 끝에서
뜬금 없이 열리는 눈동자

손병걸

남. 시각장애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부산일보 신춘문예(2005), 구상솟대문학상 대상(2006),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우수상(2008),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 대상 국무총리상(2011), 중봉조헌문학상 대상(2013) 외
시집 「푸른 신호등」,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통증을 켜다」, 「나는 한 점의 궁극을 딛고 산다」, 산문집 「열 개의 눈동자를 가진 어둠의 감시자 손병걸」, 「내 커피의 적당한 농도는 30도」

고연수(예명 연두)

2017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1차 합격을 하여 2020년 3월 여행사에 입사하였다. 유럽 여행 업무를 맡아 열심히 일하던 중 코로나19로 여행사가 문을 닫았고 두 달 후 사고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연두를 만든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하여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연두의 재활일기'를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렸는데 그것이 웹툰 작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방정환과 놀다

산길에서 논 조민지 작가

하트하트재단에서 2012년부터 연령별 맞춤형 발달장애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10주년 기념으로 장애 인식개선 그림책「4인 4색,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를 노래하다」를 발간하였다.
방정환 시인의 동시에 4인의 발달장애 작가들의 삽화를 넣어 동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본지에서는 매호 4인 4색을 1편씩 1년 동안 연재하여 어린이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순수한 동심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조민지 그림 작가에요. 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잘해요.
저는 저의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민지의 그림을 보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산길

방정환

여기가 어디 가는 산길입니까?
어머니 머리 위의 가리맙니다

잠깐만 이리로 가게 하셔요
일 없는 사람은 못 보냅니다

각시 태운 마차를 끌고 가셔요
어디서 어디까지 갈 터입니까?

눈썹에서 쪽 위까지 갈 터입니다
얼른 가요. 속히 가요. 넌지시 가요
가기는 가지마는 오진 못해요
어머님의 낮잠이 깨시니까요.

_『어린이』 4권 8호(1926)

삽화작가 조민지

1997. 자폐성장애
21. 노틀담복지관 능력개발팀 '꿈 지원 프로젝트' 미니어쳐 전시회 참여
21. 노틀담복지관 능력개발팀 '쉽고 재미있는 권익옹호 이야기' 삽화 작가 활동

세 번째

변화하다

『E美지』세 번째 목표인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사회 변화라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E美지
아름다운 영토

Photo by 최부암 **〈청매실꽃〉**

A_컬쳐

장애인만 의존적 존재인가?

– 영화 〈나를 죽여줘〉 리뷰

김 헌 식(대중문화평론가)

영화 〈인사이드 아임 댄싱(Inside I'm Dancing, 2004)〉은 자기 결정권에 따른 탈시설과 독립생활에 관해 모범적 영화로 손꼽힌다. 제대로 이런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기에 2004년 에든버러국제영화제(Edinburg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관객상, 아일랜드 영화 텔레비전상(Irish Film and Television Awards) 최우수 각본상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장애인이 등장하는데 로리는 근육장애인, 마이클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둘 다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며 장애인 집단생활 시설 '캐리그모어'에서 산다. 영화의 주 내용은 그곳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시도하는 두 장애인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특히 로리는 유쾌하면서도 반항적인 캐릭터로 언

보통의 일상이 힘든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
전 세계 영화제 7관왕
작품상 - 남우주연상 - 각본상
웰메이드 연극 '킬 미 나우' 원작
나를 죽여줘
장현성 안승균 이일화 김국희 양희준 감독/각본 최익환
제공/제작(주)영화사이다 공동제작 환상의 빛 공동제공 쓸레어파트너스(유),(주)트리플픽처스 제급(주)트리플픽처스 후원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15세이상관람가
#장애 #성(性) #존엄사 #가족
2022.10.19

어장애로 항상 지시 명령에 따라야 했던 마이클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친구가 되어 준다.

이 영화의 공헌은 분명하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리한 시설과 보호 서비스일지라도 장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억압될 수 있는 점을 잘 형상화했다. 단지 지적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두 명의 장애인이 직접 시도를 한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서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도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된다. 이런 영화 속 주인공들의 도전 결과를 보면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자립, 독립은 선한 것이고 의존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절대 선은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인 관점이 애초에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핵심이었음을 놓칠 수 없다.

「장애의 역사」의 저자 킴 닐슨은 '장애를 의존과 연결하고 편견의 낙인을 찍는다.'라고 한다. 즉 독립은 좋고 의존은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 흔히들 장애가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이며 그러므로 열등한 시민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이라도 의존관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킴 닐슨은 '민주주의 본래 모습이 그러하듯,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의존은 장애가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상호의존(Interdependent)하는 존재'라고 했다. 킴 닐슨은 '의존은 모든 인간의 삶 한가운데 존재'하며, '의존이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만든다.'라고 했다. 미국적 이상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역사학자 린다 커버(Linda Berber)는 '실제 삶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온전히 혼자인 사람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장애청소년의 성적 성숙 문제를 부각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 〈나를 죽여줘〉는 이런 독립과 의존에 관해 살펴볼 수 있다. 캐나다 극작가 브래드 프레이저의 희곡 〈킬 미 나우〉를 한국 영화로 각색했는데 공간적 배경을 춘천으로 했고 인물 설정만 조금 바꾸었을 뿐 핵심적인 화두는 같다. 뇌병변장애인 현재(안승균 분)는 아빠 곁을 떠나 독립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빠는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묻는다. 아들 현재는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에서 '남들처럼'이라고 하면 아마도 비장애인을 뜻하는 것일 텐데 구체적으로 자립생활이다. 하지만 독립생활이 성인의 삶이거나 비장애인이라는 의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장애인 청년들이라도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런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아빠 민석의 중도장애를 통해 부각된다. 목등뼈 안쪽에서 자라는 뼈가 신경을 눌러 전신마비 증세가 오면서 결국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아들보다 더 심한 장애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여동생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마침내 자신이 보살피던 장애아들에게도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독립생활을 비로소 허용한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아빠 본인도 그 말이 공허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자신이 아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 더군다나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안락사를 선택하려 한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모두 상호의존관계다. 여기에서 의존관계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 넘치는 점은 덜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 주며 살아가는 것이다. 기철은 현재와 같이 있을 때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고 존재적 가치도 느낀다. 하영은 알콜 의존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오빠 민석과 조카 현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들이 사는 모습이 남들 눈에는 한심해 보여도 그들은 잘 살고 있다.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권이 박탈된 의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독립이냐 의존이냐 하는 프레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반영되는 가이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영화 〈인사이드 아임 댄싱〉에서 제기한 장애

인의 자기 결정권은 여전히 중요하다. 서로 의존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일방적인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수평적 자기 결정권의 존중인 것이고, 이는 시설이든 가족이든 나아가 대안 공동체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김 헌 식

문화평론가.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박경리토지문화관 외래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미래세대행복위원회 위원, 제40회 방송대상 심사위원.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장애학 전공) '장애재현에서의 이슈' 출강. 저서 「비욘드 블랙」, 「세종, 소통의 리더십」, 「영화와 예술로 보는 장애인복지」 등.

김뜰
웹드라마

딱 나 같은 딸 최종화

김뜰은『E美지』15호(2020. 봄)에 '웹드라마작가 84년생 김뜰의 마법'으로 소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본명은 김민주로 에세이「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까지」(2005)를 펴낸 바 있다. 2018년 오펜(O'PEN) 2기 작가로 선정되어 예명 김뜰로 웹소설 〈어쩌다 계약 결혼〉(2019), 웹드라마 〈딱 나 같은 딸〉(2019)을 시작으로 집필 활동이 많아져서 얼마 전 대구에서 서울 근교로 이사를 왔다.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김뜰 작 〈딱 나 같은 딸〉 시나리오를 연재한다.

제작사/픽고, 기획/이민지, 연출/고낙균, PD/김수민

출연/이은주, 정민규, 김정은, 박성남, 이명준

- 제작사/픽고, 기획/이민지, 연출/고낙균, PD/김수민
- 출연/이은주, 정민규, 김정은, 박성남, 이명준
- 등장인물 한정숙/여, 46세, 보험설계사 휴직 중, 가정주부
  이아영/여, 19세, 정숙의 딸
  고남훈/남, 50세, 00은행 지점장
  박지민/남, 21세, 편의점 알바생
  조연호/남, 19세, 아영의 남사친

최종화(썸네일 제목– 스무 살 딸내미와 화해한 썰)

1. 학교 앞 거리 일각. 낮.

교복 차림의 아영과 연호, 아이스크림 바를 먹으며 학교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는 중이다.

연호　　오– 엄마 남친한테 프로포즈하라고 커플링이라니… 이아영 쫌 멋있는데? 상 여자다?

아영　　내가 좀 멋있긴 하지….

연호　　어머니는 니 말대로 프로포즈하시려나?

아영　　당연히 해야지. 안 했다가 나한테 또 혼나려고?

연호　　여자가 먼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영　　우리 한정숙 씨는 이제 내가 제일 잘 알아. 얼마나 용기 있는 여잔데.

연호　　그런가?… (끄덕끄덕하다가 아영의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려 흐르는 걸 보고 얼른 가져다가 제 입으로 핥아 정리를 해 준다)

아영　　(그 모습에 기분이 좀 이상한데…) 너는… 야… 드럽게… 너는 안 더러워? 내가 먹던 건데?

연호　　(아무렇지 않게) 몰라. 니가 먹던 건데 뭐 어때.

아영, 갑자기 연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연호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오토바이가 센 속도로 아영의 옆을 위험하게 쌩 지나가자, 연호가 남자답게 얼른 아영을 자기 쪽으로 당겨 대피를 시켜 놓으며,

연호 (오토바이 쪽 돌아보며 날카롭게) 아씨… 저 오토바이가 미쳤나…!
(하고는 아영을 보고) 괜찮냐?
아영 (놀라서) 어? 아, 어어….

그러고는 시크하게 다시 걸어가는 연호.
그런 연호의 모습에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아영, 가슴께에 손을 얹고 연호를 힘끔거리고 쳐다보며 같이 걸어간다.
그렇게 썸이 시작되어 설레어 보이는 아영, 연호의 뒷모습….

2. 아파트 놀이터. 낮.

나란히 그네를 타고 있는 정숙과 남훈.
정숙, 남훈을 보고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아영이 준 커플링을 꺼낸다.

정숙 오빠!
남훈 응?
정숙 손 잠깐만 줘 봐.
남훈 손은 왜?
정숙 글쎄 빨리 줘 봐.
남훈 (손을 내밀면)
정숙 (남훈의 손에 반지를 끼워 준다.)
남훈 (놀라서 자기 손에 끼워진 반지를 봤다가 정숙을 보는데)

정숙　(빙긋 웃으며 자기 손가락에도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보여 준다)

남훈　(괜히 알면서 싱긋 웃으며) 뭐야?

정숙　반지잖아, 반지. 무려 커.플.링.

남훈　그러니까….

정숙　솔직히 나 아직 오빠한테 뭐, 결혼을 하자거나, 먼 미래를 같이해 보자거나 그런 말은 할 자신 없어.

남훈　(보는)

정숙　근데 오빠랑 연애 한번 다시 해 보고 싶어서 프로포즈하는 거야.
흐흠… 고남훈 씨, 나랑 사귀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남훈　(쳐다보며 왠지 안 받아 주는 척 연기하다가 빙긋 웃고 끄덕이며)
기꺼이! 기꺼이 한정숙과 연애하고 싶습니다.

정숙　(웃으며) 고마워….

남훈　정숙이 너한테 먼저 프로포즈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대신 나중에 진짜 결혼 프로포즈는 내가 꼭 먼저 한다.

정숙　(알겠다는 듯 끄덕이는)

남훈, 일어나서 정숙 앞으로 가 정숙을 안아 준다. 남훈에게 포근히 안겨 있는 정숙의 얼굴이 무척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다.

3. 대학교 캠퍼스. 낮.

교재를 품에 안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아영의 모습.
아영, 머리에 웨이브도 넣고, 화장도 하고, 네일아트도 되어 있고, 성숙한 옷차림에 영락없는 대학생 아가씨 모습이다.

4. 학교 셔틀버스 정거장. 낮.

아영, 달려오는데 아직 버스 도착 안 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는다.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들고 '울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아영.

아영 (통화하며) 어, 엄마! 나 갈 때까지 파티 시작하면 안 된다? 알았지?
(사이) 기숙사 살다가 거의 1년 만에 집에 가는 건데 그럼 안 늦었지.
아직 버스 도착도 안 했어. (사이) 어, 좀 이따 봐, 엄마~ 어~.

전화 끊고 나면 버스 도착하고, 설레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영.

5. 정숙의 집 거실. 저녁.

케이크에 초 하나가 꽂혀져 있고, 아영, 정숙, 남훈이 둘러앉아 고깔모자를 쓰고
축하 노래를 부른다.

일동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아영 사랑하는 엄마랑 아저씨에~
일동 1주년 축하합니다~

폭죽 터뜨리며 박수치는 아영,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며 꽁냥꽁냥하는 남훈과 정숙.
아영, 문득 남훈과 정숙의 손을 보는데, 자기가 선물해 준 커플링을 각각 나눠 끼고
있는 모습이다. 흐뭇한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는 아영.
그런 아영과 시선을 맞추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정숙.

아영　　아! 우리 같이 기념사진 찍어요!!

아영, 핸드폰을 높이 맞는 탁자 위에 세워 두고 타이머를 설정해 놓은 뒤, 돌아와 정숙과 남훈의 팔짱을 양쪽에 끼고 환하게 카메라를 보며 웃는다.
정숙과 남훈도 웃으며 브이자를 그리고 아영과 다정한 기념사진을 찍는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으로 찍히는 세 사람의 가족 같은 모습….

6. 아영의 방. 밤.

씻고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며 방안에 들어온 아영, 잠자리에 들려는데,
머리맡에 놓인 선물상자를 발견한다. 아영, 놀란 얼굴로 선물상자를 열어 보면 레이스 달린 속옷 세트다. 카드도 들어 있어서 집어들고 펼쳐보면, 정숙이 쓴 글씨 위로….

정숙(E)　　우리 딸! 스무 살 생일 축하해! 학기 중에 생일이라 집에 못 내려올 것 같아 미리 준비했어. 성인이 된 우리 아영이 정말 축하해.
첫 생리하던 날엔 비록 엄마가 없었지만, 지금도 떨어져 살고 있지만, 마음만으로는 언제나 누구보다 가까이 우리 딸 옆에 엄마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
진짜 여자가 된 걸 축하한다. 사랑해, 내 딸내미 이아영!

카드 메시지를 읽은 아영이 눈물을 훔치며 감동을 하다가 선물상자를 다시 곱게 덮어 두고, 베개를 들고 방을 나간다.

7. 정숙의 안방. 밤.

정숙, 잠자리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아영이 들어와서 정숙 옆자리에 베개를 놓고 같이 누워 정숙에게 바짝 붙어서 안는다.

정숙　　뭐야, 징그럽게?

아영　　뭐? 징그럽다고? 나 어른됐다고 이제 징그럽다 이거야 지금?

정숙　　그래, 징그럽다. 말만한 아가씨가 애같이… 젖이라도 줄까?

아영　　칫… (하며 떨어져서 바로 눕는다)

정숙　　속옷 한번 입어 보지 왜.

아영　　아껴 놔야지. 아껴 놨다가 중요한 날 입어야지.

정숙　　중요한 날? 그날이 언젠데?
아~ 좋아하는 그 오빠랑 같이 자는 날 입으시겠다?

아영　　(샐쭉) 이제 그 오빠 안 좋아하거든? 정리했어. 이제 딴사람 좋….
(하다가 아차 싶어 입을 다무는데)

정숙　　(놓치지 않고) 누구 또 다른 남자애 생겼어? 누구누구? 누군데?

아영　　(귀찮다는 듯) 아, 있어. 딸내미 프라이버시야. (말 돌리며) 엄마! 연애는 잘 돼가?
지금 한창 불타오를 땐데… 아, 맞네… 속옷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한정숙 여사님이 더 필요하겠네. 내가 사 줄까?

정숙　　얘가 얘가, 뭔소리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얼른 자.

아영　　에헤~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어디까지 갔는데? 말해 줘~ 말해 줘~

아영, 정숙에게 장난치며 정숙의 옆구리를 간지럽힌다. 정숙도 아영을 간지럽히고…
까르르 웃어 대며 꽁냥꽁냥하는 정숙과 아영, 모녀의 행복한 한때….

8. 정숙의 집 거실. 낮.

아영이 정숙에게 화장을 해 주고 있다. 정숙의 눈에 아이섀도도 발라 주고, 마스카라도 올려 주고, 볼터치도 해 주고, 립스틱도 발라 주고….
예쁜 정숙의 완성된 메이크업을 보고 흐뭇하게 웃는 아영.
(점프) 예쁜 옷을 입고 전신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춰 보고 있는 아영과 정숙.
가방까지 마지막으로 딱 챙겨 든 후, 집을 나서는 아영과 정숙.

9. 명동 같은 번화가 거리.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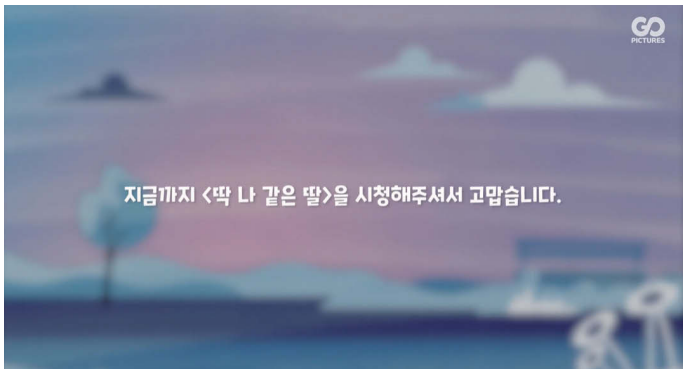
아영, 정숙,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섹스 앤 더 시티'의 여주인공들마냥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즐겁고 신나는 모습에서….

정숙(E)　　내 딸 아영아.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아영(E)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 거야. 내 엄마라서 고마워 엄마.
정숙(E)　　사랑한다, 내 딸!

아영(E)　　사랑해, 엄마!

같이 힘차게 걸어가며 정숙이 아영의 볼에 뽀뽀를 하고,
쑥스럽다는 듯 기분 좋게 인상 찌푸리는 아영의 얼굴… 다정해 보이는 모녀인데,
걷고 있던 아영의 핸드폰에 문자알림음이 울린다. 문자를 확인하는 아영….

연호(E)　　어머니는 아직 그 일 모르시지?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아?



문자를 본 아영이 뜨끔하는 얼굴로 정숙을 보는데, 정숙은 아무것도 모르고 빙긋 웃는다. 이에 어색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아영의 얼굴에서….

* 연재를 마칩니다.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1

한국장애인사

비운의 왕 선조

선조(宣祖, 1552~1608)는 1567년 16세에 왕위에 올라 1608년까지 조선을 다스린 제14대 왕이다. 중종의 손자로,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초(昭)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이균(李鈞)이었으나 후에 이연(李昖)으로 바꾸었다. 하성군(河城君)에 봉해졌다가 명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훈구 세력을 배척하고 사림을 등용하여 바른 정치를 펴고자 했으며, 유학을 장려하여 윤리와 기강을 곧게 세우고자 힘을 다했다.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의 오류를 바로잡아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으며, 명나라의 법전이라 할 수 있는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이 조선 역사를 잘못 기록한 것을 바로잡고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시정을 요구했다.[1] 이렇듯 선조는 나라 안팎을 살펴 선정(善政)을 펼치고자 했다.

그러나 사림들이 1575년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분당되고, 정론(政論)이 둘로 갈라지면서 정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1583년과 1587년 야인(野人)이 침략했으며, 1592년 4월에는 임진왜란이 발생하며 조선의 상황은 어두웠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해야 했으며,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원성을 감내해야 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런 역사적 혼란 속에서 선조는 통치자의 자리를 지킴과 동시에 자신의 병과도 싸워야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선조 편.

"내가 이 계청을 들은 뒤로 마치 신민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사람을 대할 면목이 없다. 만약 이 일을 감행한다면, 이는 옛날에 스스로 참립(僭立)했던 자와 다름이 없다. 내가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어찌 이를 차마 감행할 수 있겠는가. 후세에 있을 일은 그만두고라도 죽음 이후에 무슨 면목으로 조종(祖宗)을 뵐 수 있겠는가. 조종이 아래를 굽어보시고 귀신이 옆에 있는데, 어찌 감히 털끝만큼인들 거짓 겸사가 있겠는가. 대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나는 본시 심질(心疾)이 있어 때없이 발작하는데 지금 걱정과 병이 겹치고 있으며, 성격 또한 소졸(疏拙)하여 잡다한 일을 좋아하지 않은 지 오래이다. 그런데 어찌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여 번거로이 할 수 있겠는가. 경들이 혹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다시 거론하지 말라."[2]

이는 좌상 정유길이 2품 이상을 거느리고 임금의 덕을 기리기 위한 칭호인 '존호'를 올리고자 청해 왔으나, 선조가 거절한 기록이다. 선조는 자신의 병인 '심질(心疾)'을 이유로 들며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지 않았다. 1588년 37세의 선조는 지병인 '심질'과 나랏일에 대한 걱정이 겹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선조가 앓고 있던 '심질(心疾)'은 '광병(狂病)', '광질(狂疾)'이라고도 하며 정신장애의 하나인 정신분열증이다.[3]

선조는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증상이 심해져 '존호' 문제를 거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하들의 청은 여러 번 계속되었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지금 또 이같이 청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일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감당할 만하다면 저번에 어찌 감히 그와 같은 대답이 있었겠는가. 지난번 경연에서도 가당치 않다는 뜻을 누누이 말하였는데, 의외로 나의 뜻이 밝혀지지 않고 조정이 다시 그 일을 어지럽게 들고 나오니, 놀랍고 민망함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본디 불민한 사람으로 반평생 동안 신병을 지니고 있어 심질(心疾)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평소 생각하는 것은 금궤(金櫃) 속의 약일 뿐, 인사(人事)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 만약 여러 날 고집한다면 반드시 광질(狂疾)이 발작할 터이니, 이는 조정이 인군을 사랑하는 뜻이 아닐 것 같다. 제발 경들의 덕을 힘입어 일찍 물러나 쉬었으면 하니,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4]

2)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1588) 5월 21일조.
3) 정창권, 앞의 책, 98면.
4)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1588) 윤6월 1일조.

선조는 심질(心疾)로 인해 쉬고자 하는 뜻을 밝히며 신하들의 청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물리쳤다. '존호' 문제를 사이에 두고 신하들과 선조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었다.

스스로를 책망한 왕

'존호' 문제가 왜 이토록 중요시되었던 것인가? 16세의 이균은 명종이 세상을 떠나자 인순왕후의 승인을 받아 왕으로 추대되었다. 선조는 중종(中宗)의 서자였던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후궁의 손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선조의 고민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며,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궁궐 생활은 녹녹치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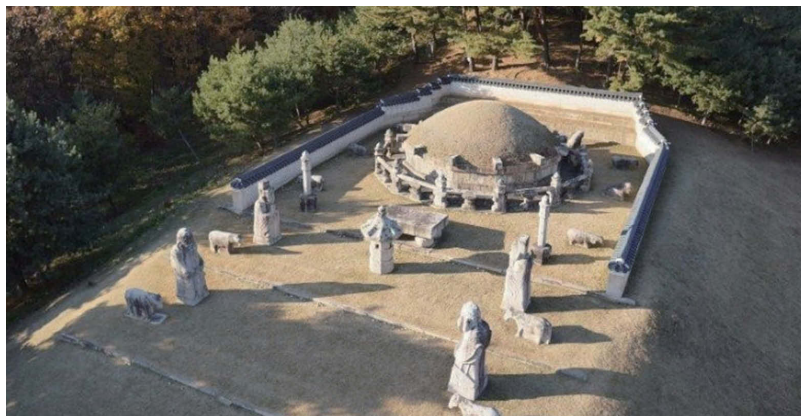
세자였다가 국왕이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그가 정치를 펴는 과정에 심리적 걸림돌이기도 했다. 동궁에서 자라지 않은 왕이었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신하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는 선조에게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선조의 행보는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며 진정한 군주가 되고자 노력했다. 이런 그의 노력에서 신하들은 차차 성군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선조 21년(1588)에 왕의 위엄을 명나라 법전인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록된 조선의 역사를 바로잡게 된다. 일명 '종계변무의 성공'이었다.[5)]

종계변무는 조선 개국 초부터 선조 때까지 약 200년간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종계(宗系)를 개록(改錄)해 줄 것을 주청한 사건이다.

이 일을 계기로 신하들은 선조의 노력에 고개를 숙였고, 존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선조는 이를 거절했다. 선조가 존호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른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와는 달리, 당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과 야



목릉 선조릉

5) 이한우(2007), 「선조, 조선의 난세를 넘다」, 해냄, 273~280면. 종계변무는 조선 개국 초부터 선조 때까지 약 200년간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종계(宗系)를 개록(改錄)해 줄 것을 주청한 사건이다.

인(野人)의 침략 등으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다.

종묘를 지켜 온 지 20년 동안에 밤낮없이 과람(過濫)된 처사가 있어 위아래에 죄를 얻을까 걱정하였는데, 어찌 존호를 받아 스스로 과시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나의 병든 마음이 더욱 우울하여 다시 병이 된다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임금이란 존귀하지 않을까를 걱정할 나위가 없는데, 존호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나의 해괴하고 무익한 일이니, 제발 두 번 다시 말하지 마라.[6]

이처럼 선조는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하고자 하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선조는 통치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임금이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 기쁨보다 근심이 훨씬 컸던 탓에 선조의 심질은 점점 심해져 갔다. 선조에게는 '존호 문제'보다 심질을 치료하고자 쉬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였다. '만약 여러 날 고집한다면 반드시 광질(狂疾)이 발작할 터이니'라고 선조 스스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심질의 증상이 심하고, 충동 조절에도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극심한 고충(苦衷)이 계속되다

선조가 앓았던 심질은 정신장애이기에 일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인간관계와 생활에 고통이 따랐다. 이것은 선조와 같은 심질을 앓았던 홍문관 부응교 조정립(趙正立)이 지병인 심질(心疾)을 이유로 사직을 상소한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

> 계묘년 겨울부터 심질(心疾)이 크게 발작하여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마구 외쳤으니, 다시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기가 크게 쇠약하여 온갖 병이 한꺼번에 발작했기 때문에 기절하였다가 살아난 것이 하루에 두서너 번이 되기도 하는데, 겨우 의약(醫藥)에 힘입어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사(人事)를 접하면 증세가 곧 위중해지므로, 마지못하여 고요한 곳에서 생명을 보호할 생각으로 어렵게 가족을 이끌고 시골로 간 지 이제 너댓 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내려가서부터는 문을 닫고 오직 심질을 고치고 여러 증세를 조리하는 것을 급한 일로 삼고 다시는 다른 일을 모르고 지냈으므로 신의 종적이 한 번도 이웃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웃 사람도 신의 낯을 보기가 드물어 마치 뜻대로 출입할 수 없는 수

6)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1588) 윤6월 1일조.

> 인(囚人)과 같았습니다.
>
> 그러나 신도 사람인데, 병이 매우 위중하지 않다면 무슨 까닭으로 친척과 친구를 버리고 인사를 끊은 채 공산(空山)에서 굶주리며 이토록 외롭고 적적한 것을 참으면서 그 괴로움을 모르겠습니까.[7]

조정립은 심질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하며 간절히 사직을 청했다. 조정립의 경우에도 심질(心疾)은 비정상적인 정서, 왜곡된 지각, 발작 등으로 사회적 기능에 문제를 보였고, 심할 때는 관직 생활을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 정신장애였다. 다행이나마 조정립은 사직을 청하여 병을 치료하고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조정립과 같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던 선조는 왕이었기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웠다.

계속되는 신하들의 요청에 선조 23년(1590) 4월 24일 '정륜입극성덕홍렬(正倫立極盛德洪烈)'이라는 존호를 받았다. 신하들의 청을 더 이상 모르는 체할 수 없었던 왕으로서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2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선조는 나라를 잃고 헤매는 가운데 임금인 자신이 존호를 사용하는 것은 죄라며 존호를 삭제할 것을 명했다. 급기야 의주로 피난하고 있었던 선조는 "전일에 존호(尊號)를 삭제하라고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른바 존호는 무슨 호인지 모르겠다. '어진 이를 배척하고 간사한 사람을 쓰고, 실성하여 나라를 잃은 전하(斥賢用邪失性喪國殿下)'라고 한다면 삼가 받아들이겠다. 존호가 그대로 있다면 즉시 삭감하라는 뜻으로 승전(承傳)을 받들라."[8]라고 정원에게 전교했다. 다소 자학적으로도 보이는 선조의 명은 존호 문제를 넘어, 선조의 정신적 상황을 짐작케 한다.

통치자로서 늘 고뇌해야 했던 선조는 더 이상 심질을 참아 내기가 어려웠다.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은 그의 정신장애를 더욱 심화시켰다. 정신장애에 더해진 심리적 압박감은 선조로 하여금 왕위에서 물러나고자 결심하게 했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경도(京都)에 있을 때 옥당(玉堂)에 내린 비답에 인간사(人間事)에 뜻이 없다는 전교가 있었는데 경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에야 생긴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인데 지금에 와서는 뜻을 잃고 마음을 잃고 집을 잃고 나라를 잃었으며,

7) 「선조실록」 204권, 선조 39년(1606) 10월 5일조.
8)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1592) 12월 13일조.

마침내는 눈까지 잃어서 이미 어둡게 되고 말았다.

옛날 제(齊)나라에 맹인 재상 조정(祖珽)이 있었지만 어찌 맹인 임금이 있었는가. 거기다가 심질(心疾)이 날로 고질이 되어 불을 대하고도 춥다는 소리가 나오고 눈을 씻어도 오히려 열이 생긴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 달리며 혼미하여 동서를 구별하지 못해 좌우에서 모시는 자들이 모두 아연실색을 하는데, 유독 경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병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몇 가지가 겸해 있고 허다한 죄악을 지은 자이다. 내가 하루를 더 왕위에 있으면 백성들이 하루를 더 걱정하게 된다.

> 지금이 물러나기에 합당한 때이니 바라건대 경들은 불쌍하게 생각하여 속히 물러나게 허락하라. 그러면 후일 지하에서 나라를 잃은 원통함은 마음에 비록 사라지지 않겠지만 물러나게 한 은혜로 반드시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원컨대 경들은 더욱 불쌍하게 여겨 내 작은 뜻을 이루게 하라. 존호(尊號)에 대한 일은 전에도 전교가 있었지만 더욱 한번 웃을 거리도 되지 않는다. 당 덕종(唐德宗)의 고사(故事)도 있으니 속히 없애는 것이 더욱 이치에 합당하다. 다시 회계(回啓)하지 말고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9]

임진왜란을 겪으며 정신적인 고뇌와 스트레스로 정신장애가 악화된 선조는 선위의 뜻을 위와 같이 밝혔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발은 컸고, 선조 25년 11월 8일 정원, 좌의정 윤두수 등이 양위의 뜻을 거두어 달라 청했다. 이들은 전쟁 상황에서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나라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며, 모아진 인심을 다시 흩어 버리는 일이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선조는 "고질 때문에 사람들 뜻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이처럼 소란을 떠니 우선 후일을 기다리겠다."고 하며 어쩔 수 없이 뜻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후 선조는 자신의 정신장애가 더욱 심해졌음을 느꼈고, 이에 왕위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뜻을 비망기로 대신에게 전교하였다.

> 지금 병 때문에 침상에 앓아누워 있는데도 구름 쌓이듯이 많은 국가의 기무(機務)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수(應酬)하느라 일각(一刻)도 쉴 수가 없다. 아, 병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

9)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1592) 11월 8일조.

> 한들 나랏일에 있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몸만 손상시킬 뿐이다. 또 반드시 나라를 상망(喪亡)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대신들이 유의할 일이 아니겠는가. 심질(心疾)이 더욱 극심해져서 전광증(顚狂症)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인사(人事)를 살피지 못하니 곁에 있는 자들이 놀라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다. 이는 심장이 먼저 상한 것이어서 상하지 않은 것이라곤 오직 한 줌의 기(氣)뿐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더욱 하루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경들은 다시 헤아려서 사실을 갖추어 곧바로 중국 장수에게 고하라. 그리하여 병들어 죽어 가는 사람이 속히 처치(處置)되도록 하면 나랏일에도 매우 다행한 일이고 종사(宗社)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여러 대인(大人)들에 대해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고 만백성들에게도 매우 다행한 일이겠다.[10]

정신장애가 악화된 선조는 미친 증세인 전광증을 보인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과격한 행동, 판단력 상실, 사회적 기능 상실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선조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뜻을 간절히 밝힌 것이다. 선조의 선위 의사는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선조 40년(1607) 10월 9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난 선조는 10월 11일 비망기를 내려 세자에게 전위하고자 했다. 그러나 영창대군과 광해군, 이들을 둘러싼 권력 간의 팽팽한 대결은 이를 허용치 않았다. 그리고 선조 41년(1608) 2월 1일 선조는 세상을 떠났다.

선조를 일컬어 후세는 '비운의 왕'이라 칭한다. 어진 군왕을 꿈꿨던 선조였으나, 신권(臣權)과의 날선 대립은 파장이 컸기에 당쟁의 중심이기도 했으며 피해자이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2년 전, 일본의 동태를 살피고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나 통신사의 상반된 보고로 국방 대책을 세우지 못한 까닭에 임진왜란에 속수무책이었던 무능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 까닭에 백성들의 고통은 컸고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다. 그러나 후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선조 스스로 '마음의 병'이라 칭했던 정신장애를 끌어안고 통치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군주로 군림하며 쉽게 사는 길도 있었을 것이나, 선조는 자신의 병이 심해지자 나라를 그릇되게 다스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 스스로 물러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던 왕이었다. 반평생을 정신장애로 고생하면서도 평생 조선을 보듬고자 했다. 비운의 왕이었지만, 선조가 한 사람으로 참아 낸 '장애'는 그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1598) 2월 25일조.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2

세계장애인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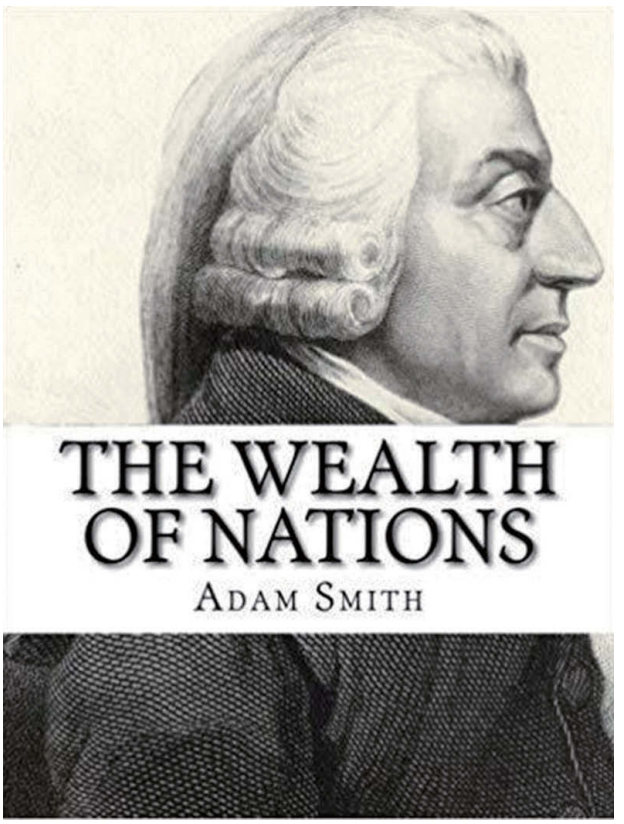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외모 열등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스코틀랜드 세관 관리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나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1737년 글래스고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도덕철학 교수인 F. 해치슨에게 영향을 받았다. 옥스퍼드대학교 밸리올 칼리지에서 공부한 뒤 1751년에 글래스고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해치슨 교수의 후임으로 도덕철학의 강의를 맡아 「도덕감정론: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전 유럽에서 명성을 떨쳤다. 이 책에서 인간행위의 타당성을 제3자적 존재로서의 관찰자에 의한 동감 여부로 고찰하였다.

그 후 청년 공작 바클루의 개인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사로서 프랑스 여행에 동행하여 볼테르와 케네, 튀르고 등과 알게 되었는데, 특히 케네에게서 경제학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귀국 뒤 커콜디에서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집필에 몰두하여 1776년 발표하였다.

그가 사망한 뒤 글래스고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글래스고대학 강의: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란 제목으로 1798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당시 학생들의 필기장을 근거로 쓰여졌는데, 당시 그의 강의가 도덕철학의 강의이면서도 동시에 법학 · 경제학 분야에까지 걸쳐 있음을 보여 준다.

말년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는데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은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론 · 역사 · 정책에 도입하여 체계적 과학으로 이룩하였고, 중상주의적 비판은 당시 영국의 자유통상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중상주의 비판을 통하여 부(富)는 금 · 은만이 아닌 모든 생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의 부의 증대라고 보아 생산에서의 분업을 중시하였다.

근대인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고전경제학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는 애덤 스미스는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 눈이 튀어나오고 아랫입술이 돌출해 있었으며 말을 몹시 더듬었다. 그는 저서를 통해서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스미스는 경제학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자유시장의 경제체제를 최초로 규명하여 스미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각국 정부의 경제 지침이 될 정도로 그는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자신의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였던 것이 애덤 스미스를 최고의 이론가로 만들었다.

피플

자폐성 장애인 국내 1호 박사 윤은호

지난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면서 자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우영우는 판타지다.', '우영우는 현실에는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도 서고 있는 현재 한양대학교 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윤은호 박사를 만나 본다.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고

윤은호 박사는 '우영우는 환상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는 '자폐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윤 연구원은 1986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보며 행복했다. 두 살이 될 무렵 아기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서 자폐성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당시만 해도 자폐성장애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좋다는 곳을 찾아다니며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방황 속에 보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는 학령기가 되었을 때였다. 그의 학창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윤은호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폐증 아이라면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학교폭력을 피해 남자중학교에서 남녀공학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었죠."

쉽지 않은 학교생활이었지만 목표는 확고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와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5년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했다. 캠퍼스 생활에 익숙해져 갈 대학 2학년 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은사인 백승국 교수를 만났다. 그는 백 교수의 영향으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백 교수는 윤은호가 가진 문화콘텐츠에 대한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송도 워터프런트 공간 활용 방법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문화콘텐츠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게 내 연구과제이자 목표였어요. 교수님 조언에 따라 인문학을 실용적인 학문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박사 1호

마침내 2016년 8월 국내 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졸업 후 철도신문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턴으로 취업을 했었다.

"취업의 문을 뚫기가 참 어려웠어요. 철도신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았고, 진흥원

윤은호 박사

가족사진

은 정규직이 아니어서 1년밖에 근무를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백 교수의 도움으로 모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다. 국내 최초로 자폐성 장애인 교수가 된 것이다. 초빙교수로 임용된 윤은호는 2학기에 '심리학과 웰니스 콘텐츠'라는 강의를 맡으며 처음 학생들 앞에 섰다. 그는 처음 교단에 섰을 때를 잊지 못한다. 처음 학생들을 마주했을 때는 설레기도 했고 자부심도 컸다. 자폐성 장애인 최초의 교수로서 남모를 책임감과 부담감도 섞여 있었다. 윤 교수는 첫 수업에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자칫 자폐성장애의 특성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힐링콘텐츠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강의

교수 시절

윤은호가 가야 할 길

사람들은 윤 연구원의 방송인터뷰를 보고 의사소통을 너무 잘 한다고, 그 정도면 장애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윤은호는 2004년 자폐성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그의 의사소통은 조기교육 덕분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대화일 뿐 유불리를 따지면서 경쟁하는 대화는 매우 서툴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번번이 기회를 놓치곤 한다.

자폐의 특성으로 관심 분야의 몰입도는 매우 높아서 공부는 잘할 수 있었고, 연구 성과도 좋지만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는 기술은 매우 미숙하다. 윤 연구원은 비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계에서는 비장애인 취급을 받는 회색인간으로 어쩌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여러 나라에는 이미 자폐성 장애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회가 있고, 의사 등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자폐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문턱이 높습니다."

그는 지난해 한양대학교 후견신탁연구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자폐성 장애인 생애와 관심사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녹여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자폐성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들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윤 박사는 '자폐성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마치 다차방정식과 같다.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보다 부모들이나 제3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과 다양성이 중요하다. 자폐성 장애인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자폐성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서 진짜 우영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만나〉

윤은호

1986년 인천 출생
1993~2005년 인천동부초 · 인송중학교 · 송도고등학교 졸업
2016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문화경영학)
2019년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 임명
2022년 한양대 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삶을 나르는 詩

인생 찬가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1807~1882)

슬픈 가락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삶은 환상이 아니고,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 매장하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 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느님이 계시다

위인들의 삶이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어나 무엇이든 하자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평생 시를 읽으며 아주 짧은 한 편의 시구에서 생을 전율케 하는 숱한 시어(詩語)를 만났습니다. 자칭타칭 시 전도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작품에서 '오, 성이여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시인 허수경은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라고 했으며, 소설가 양귀자는 '슬픔도 힘이 된다'라고 했지요. 이 작품 역시 많은 위안을 받았던 시입니다. 번역본은 역자에 따라 다르지만, 긴 원문을 읽는 맛은 특별해서 더 좋아합니다. 밑줄 친 두 구절은 이 시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Act, act in the living Present!
Heart within and God o'erhead!

아무리 아프고 슬픈 현실이라 해도 지난 세월, 그것에 얽매어 절망할 짬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오늘도 감사할 뿐이네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Today is a gift.'란 말이 순간순간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또 간절히 구하게 합니다. 저에게 있어 시를 읽고 책을 읽는 행위는 인생의 항체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지요. 'You are what you read.—당신이 읽는 책을 알려 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 주마.'란 말도 생각납니다.

강남국

수필가. 칼럼니스트. 영어교육 봉사자. 활짝웃는독서회 회장, 강서구장애인문인협회 회장.
계간 『문학에스프리』 등단, 『국제문예』 시 등단(2021년 겨울호). 제27회 아산상 수상 등.
저서 「나눔 속에 핀 꽃」, 「아버지의 손과 지게」, 「삶을 나르는 시」, 「책 아저씨, 강남국」(1, 2권), 「세상의 말 다 지우니」.

우리do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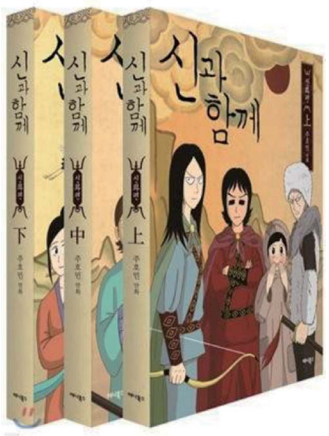
〈신과 함께〉 웹툰작가 주호민은 장애자녀 아빠

영화 〈신과 함께〉

주호민은 〈신과 함께〉, 〈방탕후루〉, 〈무한동력〉 등 다수의 히트작을 만든 웹툰작가이자 스트리머로 활동 중이다. 동료 웹툰작가 이말년과 유튜브에서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 주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나면 조회수 10만 이상을 기록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그맨보다 웃긴 웹툰작가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주호민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2017년 영화 〈신과 함께〉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하면서부터이다. 그의 웹툰을 영화화한 것이어서 주위에서 많은 축하를 보내왔다. 하지만 그즈음 그는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 결혼 후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자폐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호민은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후 '인간 주호민은 쓰러지고, 아빠 주호민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자녀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



할 때 둘째 아이 얘기만 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왜 큰 아이 얘기는 안 하느냐?'고 물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와서 바로 진행하던 유튜브에서 첫 아이에 대한 고백을 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다. '방송 중에 집에서 전화가 오면 갑자기 뛰어나가고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라고 이해해 주는 사람, '사실 제 동생도 자폐가 있는데 님께서 자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공감하는 사람 등….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 간혹 숨기려고 했던 심정이 뒤섞여 있던 시간들이 후회되었다. 혼자 껴안고 있던 아픔을 꺼내 놓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주호민은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나와서 2013년생 첫 아이가 자폐성장애로 인해 초등학교를 9세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배우 오윤아님이 예능프로그램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다.'며, '자폐아를 키우면서 가진 생각들을 만화로 풀어내면 많은 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며 차기작을 공개하였다.

아들과 함께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美터

SK에코플랜트의 에코울림 연주단

SK에코플랜트가 지난해 8월 대기업 1호 '문화 · 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음악인으로 구성된 클래식연주단을 창단하였다. SK에코플랜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어울림세상으로부터 단원들을 추천받아 내부 면접을 거쳐 장애인 연주자를 선발했다. 선발은 활동 가능 분야, 연주단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SK에코플랜트 장애인 클래식연주단인 '에코울림'은 20~27세 자폐성 장애인 연주자 6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10년 이상의 연주 경력을 갖추고,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등을 전공했다.

'에코울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SK에코플랜트는 연주자들이 안정적인 연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SK에코플랜트 소속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예술 직무에 맞는 고용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사회성 훈련과 직장 예절 등의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사)어울림세상은 연주 연습실 제공과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장애인 고용 분야의 다변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2020년 '장애인체육선수단' 창단에 이어 2022년 장애인클래식연주단을 창단하였는데 SK에코플랜트는 단원들이 음악에 전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문화예술 직무를 찾아 장애인 채용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장애인 클래식연주단인 '에코울림'의 협력 사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어울림세상 조명민 대표에게 현재까지의 상황과 새해 계획을 들어 보았다.

연주단은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SK에코플랜트 관리 하에 탄력근무 중에 있다.

월급을 받는 발달장애 단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훈련 중에 힘들면 시시때때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던 단원들이었는데 근로 계약서를 쓴 이후부터는 지금 근무하는 것이니 열심히 한다는 표현을 한다.

(승원) 월급 받아서 가족들 식사 대접을 했다. 돈 모아서 인형을 마음대로 사고 싶다. (승엽) 전문 연주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꾸준한 악기 연습으로 좋은 연주를 하겠다. 음악대학을 거쳐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직업 연주자의 꿈을 이루었다.

(민수) 월급을 받으니 근무한다고 느껴서 연습을 안 하면 눈치가 보인다. (지현) 계약서 쓰기

전엔 즐겁게 음악을 한 거 같은데 계약서 쓰고 난 후 직업과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승현) 실감이 난다. 계약서 쓰기 전에는 '내가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했었는데 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받게 되니 정말 기뻤다.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 기회가 확대되었는지

아직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연주 활동이 많지는 않았다. 현재는 연주자들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SK에코플랜트 초청 연주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소속이어서 좋은 점

SK에코플랜트의 직원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혜택보다도 값진 것은 단원의 증명사진과 회사명 및 로고가 들어가 있는 사원증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승엽) 최저임금의 근로 연주자가 아닌 연봉계약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민수) 할머니도 아는 회사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좋다. 건강검진해 줘서 좋

다. 월급을 주니까 좋다. (**지현**) 친구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면 부러워하고 축하해 줘서 좋다. 경조사비를 지원해 주어 좋다. (**승현**) 나도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다.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와 회사의 복지혜택, 소속감이 좋다.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연습 장소는 어울림예술단으로 활동할 때와 동일하게 서대문 소재의 연습실에서 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업무계획표 및 업무일지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음악지도 또한 종전과 같이 자원봉사로 단장이 하고 있다. 달라진 부분은 음악지도교사 지원이 있어서 한결 풍성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더욱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가지만 단원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단함이 사라진다.

올해 계획 추가 단원을 모집하여 더욱 풍성한 음악을 만들어 SK에코플랜트의 직원으로, 장애인 연주단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올해는 국내 사회공헌 연주, 장애인 인식개선 연주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해외 공연도 계획하고 있어서 SK에코플랜트의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경영을 해외에도 자랑하고자 한다.

해외 문화계 소식

두 팔 없는 발레리나 비토리아 부에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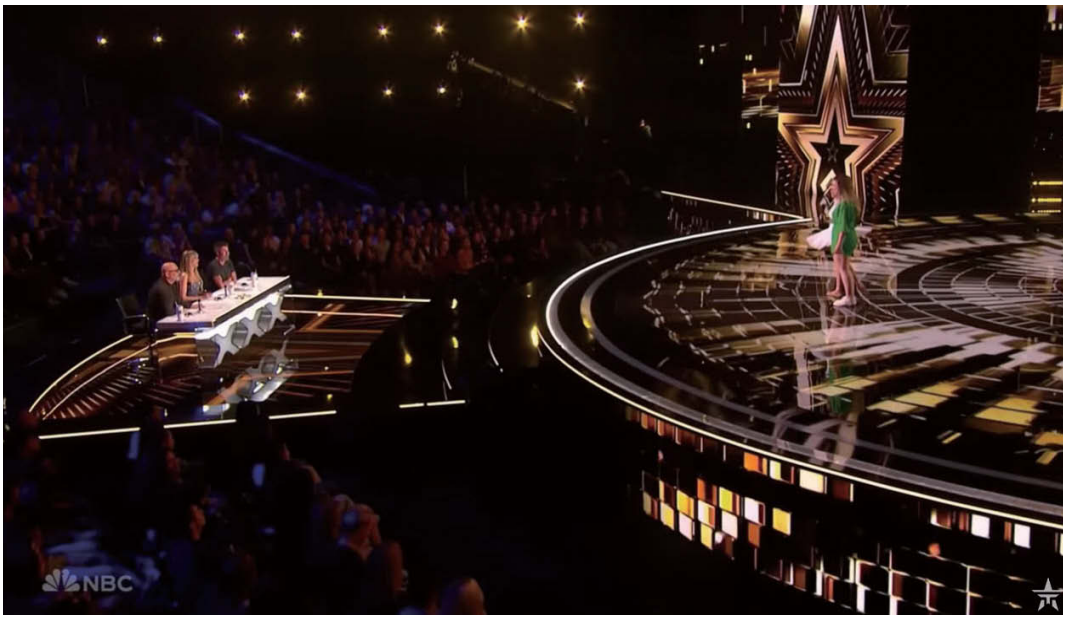
2023년 비토리아 부에노(Vitoria Bueno)는 〈America's Got Talent(AGT)〉 무대에 오른 가장 주목할 만한 댄서 중 한 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비토리아 부에노는 2021년 독일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다스 슈퍼탤런트(Das Supertalent)〉 시즌 15에서 골든 버저(Golden Buzzer)를 받았고, 결승에서 2위를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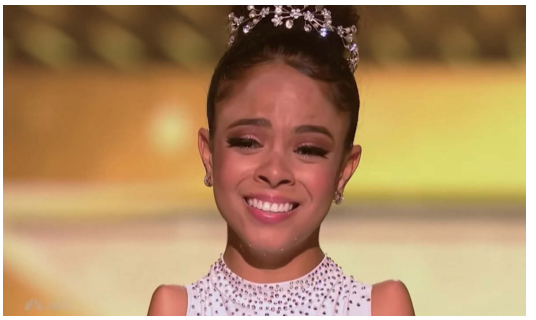
비토리아 부에노는 17세의 소녀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전적인 문제로 두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5세 때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춤으로 그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발레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녀의 열정은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첫 발레 수업에 데려다 주었을 때, 딸이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토리아는 그녀의 어머니와 달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의 팔을 '단순히 세부사항(simply a detail)'이라고 말했다.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다. 디테일은 예술인 각자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창작하는 것이기에 두 팔이 없다는 것이 발레를 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토리아는 발레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assembles(공중에서 두 다리를 모아 착지하는 점프), pirouettes(발끝으로 돌기) 등 완벽하게 연기한다. 그녀는 또한 재즈와 탭댄스도 잘 해서 관객들에





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그녀의 재능과 끈기는 그녀를 소셜 미디어의 슈퍼스타로 만들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모두 놀라워하며 갈채를 보냈다.

비토리아 부에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춤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익(benefit)을 얻었고, 비장애인들은 장애를 사소한 것(minor details)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비토리아 부에노는 장애인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We are much more than our handicap, thus we must pursue our aspirations."

"우리는 우리의 장애보다 훨씬 더 많은 핸디캡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토리아는 2022년 4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댄스 콘텐츠를 꾸준히 올렸다. 그러자 그녀를 데일리 메일, 굿모닝 아메리카, 인사이드 에디션, 그리고 여러 텔레비전 쇼에서 소개하였다. 그녀는 현재 41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3년 〈America's Got Talent(AGT)〉에 등장한 비토리아 부에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레'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엔터테인먼트 사업가 킬리 캣웰스

영국 출신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킬리 캣웰스가 지난해 12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의 날' 전야 행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성과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로로 상을 받았다.

오늘날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가로 거듭난 그녀지만,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자신이 직면하는 사회적 차별 때문이었다. 캣웰스는 연예계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영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곧바로 직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장애를 공개하면서 고용이 무산되었다.

캣웰스는 직장을 구하는 대신 '씨 탤런트(C Talent)'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다. 회사는 여성장애인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인권법과 기타 다양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용하여 장애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회사에 소속된 약 100여 명의 장애예술인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포용과 장애인 대표성을 실천하고, 비장애인들이 갖는 고정관념에 변화를 주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선도적인 한 크리에이터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받고 인수되었는데, 이것은 크리에이터 업계에서 장애인 인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카메라 뒤에는 더 많은 장애인작가와 창작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답니다. 우리 각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적극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싶답니다."

그녀는 대중이 가진 장애인 엔터테이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장애예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녀는 겉으로 보면 장애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명백하게 17세 때부터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다.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캣웰스는 농장에서 동화 같은 삶을 살았다. 할아버지로부터 낚시를 배우고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를 꿈꾸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랄한 10대 소녀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갔고, 의료진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그녀는 만성질환 장애인으로 진단받았다. 그녀는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서서히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적, 인식적 장벽은 장애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면서 그녀는 더 깊이 느꼈다.

영화와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장애인 캐릭터는 대부분 악당, 피해자, 혹은 동기를 부여하는 특별한 삶을 산 사람으로 묘사되곤 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장애인은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도구나 소품으로 전락시키는 데 익숙하다.

미디어 제작 업계에 만연한 관행적이고 오래된 습관적 작업 방식을 바꾸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캣웰스와 그녀와 함께하는 장애예술인들은 전문가이자 직업인으로서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위 글은 김해영이 전하는 해외 장애인 소식(2022. 12. 22.)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국 로열발레단의 휠체어 발레리노

영국 발레리노 조 파월 메인(25)은 휠체어를 타는 무용수이다. 어린 나이에 영국 로열발레단에 입단한 그는 입단 4년째 되던 해 왼쪽 무릎에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가 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는 다시는 춤을 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특수 무용수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발레 경연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로열발레단 '슬립워커' 공연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받았다.

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클래식 발레계에는 다양한 접근 창구가 부족하다.'며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발레 테크닉을 재정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서 발레를 하는 것은 기존 클래식 발레를 약간 변형시킨 것 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발레가 되었다고 조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다.

BBC
이후 교통사고도 당했죠

BBC
창구가 부족해요

INTERNATIONAL

Introduction of The “On-Emiji”

“On-Emiji” is a new ontact space for disabled arts.

It’s a disabled art platform.

Hello, my name is Ony, the character of the “On-Emiji”. Do you know where we are?

It’s a new art space. A very spacious, comfortable, and also a beautiful place.

Now, let me assist you to the “On-Emiji”.

Promotion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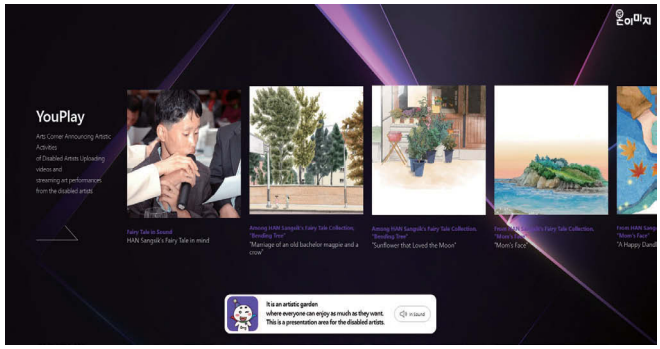
To promote all activities created by the disabled artists,

The promotion zone has been created, and will be an area with active communication.

YouPlay

It is an artistic garden where everyone can enjoy as much as they want.

This is a presentation area for the disabled artists.



Smart Exhibition Hall

This area is a permanent exhibition hall. The fascinating paintings can talk.

That's why it's barrier-free.

Web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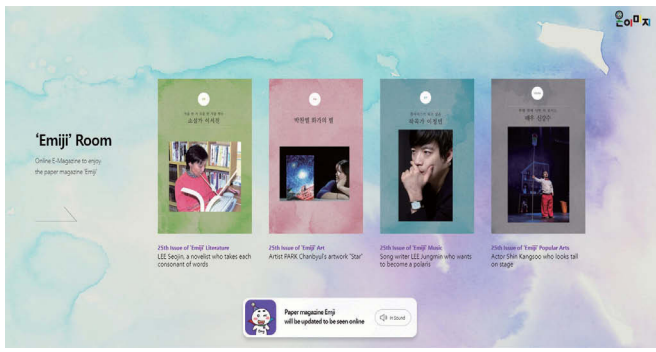
Now, we've come to the secret room. People can subscribe webtoons and web novels at this place.

You'll probably find huge amounts of interesting stories.

Emiji Room

The paper magazine '*Emiji*' will be posted at this area to be seen at all times.

You can come straight to this site by typing "On-Emiji" in Korean on the search engine.Let's all enjoy "On-Emiji" together!



세계화

‘온이미지’ 소개

“온이미지”는 장애인예술의 새로운 온택트 공간으로 장애인예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온이미지” 캐릭터 ‘오니’예요. 여기가 어디냐구요?

새로운 예술 공간인데요. 아주 넓고, 아주 편하고, 아주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지금부터 “온이미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홍보존

우리 장애예술인들의 모든 활동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존을 만들었어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유플레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예술 마당이에요.

여기는 장애예술인들의 발표 공간입니다.

스마트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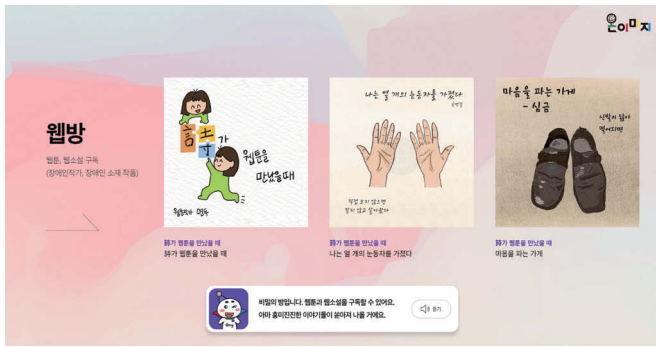
여기는요. 상설전시관인데요. 그림이 말도 하고 아주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배리어프리예요.

웹방

드디어 비밀의 방입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구독할 수 있어요.

아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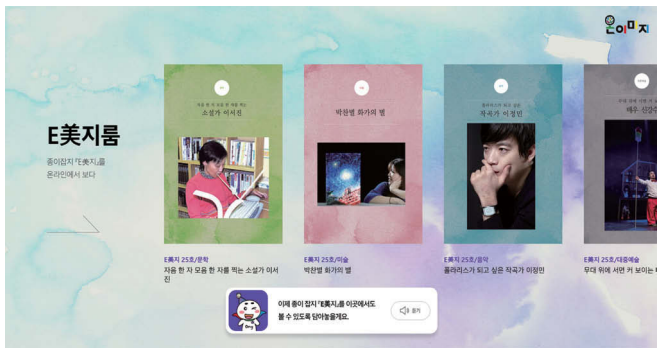


E美지룸

이제 종이잡지 『E美지』를 이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곳에 담아 놓을 게요.

검색어 창에 한글로 “온이미지”라고 쓰시면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온이미지”에서 함께 즐겨요!



2022 누구?시리즈 5종

누구시리즈

장애예술인의 삶, 그들의 삶이 바로 예술이다

책으로 만나는 장애예술인 〈누구 시리즈〉 5종

2022 누구?시리즈 5

- 14 이정희 황실자수장이 된 이정희
- 15 고아라 음악의 진동을 느끼며 춤을 추는 고아라
- 16 박 환 봄의 눈을 가진 화가 박환
- 17 김남제 춤추며 노래하는 가수 김남제
- 18 김 뜰 웹드라마작가 김뜰의 마법

신국판(150×220) | 각 104면 | 각권 값 12,000원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 방귀희)는 2022년 〈누구?!시리즈〉 5종을 내놓았다. 책으로 만나는 장애예술인 〈누구?!시리즈〉를 기획하여 2016년 3종, 2017년 10종을 발간한 후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멈추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안정적으로 발간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왔다. 장애인예술은 장애예술인의 삶 속에서 녹아나온 창작이라서 장애예술인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누구?!시리즈〉는 꼭 필요한 작업으로 이것이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누구?!시리즈〉 100권을 목표를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으로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데, 방귀희 대표는 의문과 감탄을 동시에 나타내는 기호 인테러뱅(interrobang) 로고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작가와 작품이 주는 두 배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획 · 출판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 도서출판 솟대 02)861-8848

콘셉트: 장애인예술의 온택트 공간

타이틀: 온이미지(on-E美지)

- 검색: 온이미지
- 도메인: www.onemiji.com
- 로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컬러로 표현하여 장애인과 예술의 다양성과 함께 지구와 방송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새로운 온택트 장애인예술 플랫폼을 형상화함

- 캐릭터 '오니(Ony)'

특징:

- BF(barrer free) 공간
- 디지털 효과 극대화
- 세계화

콘텐츠:

···› 홍보존(zone): 장애예술인 개인 프로필이나 행사 등을 알리는 소통 코너
···› 유플레이(YouPlay):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발표하는 예술마당
장애인예술 관련 동영상 업로드, 장애인예술 공연 스트리밍
···› 스마트전시관: 배리어프리 온라인 전시회
···› 웹방: 웹툰, 웹소설 구독
···› E美지룸: 종이잡지『E美지』를 온라인으로 보는 방

장애예술인 욕구에 기반한 정책 개발하는

장애인예술연구소

Disabled Arts Research Center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정관 제4조(사업) 4항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사업에 근거하여 협회 부설 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연구 실적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세계 유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이 발간되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통해 장애예술인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3만 2천여 명 장애예술인들의 필독서!

- 장애인예술 정의
- 장애인예술 장르
- 장애인예술 실태
- 장애인예술 이론
- 장애인예술 역사
-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
- 장애인예술 사업
- 해외 장애인예술
- 장애예술인지원법 해설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을 위해 등

※10장으로 구성된 비매품

제작 사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T. (02) 861-8848 | klah1990@daum.net | www.emiji.net

프레임7_김환 作

E美지 2016년 7월 2일 등록 · 금천-바00028 · 2023년 3월 25일 발행 통권 27호 · www.emiji.net · 전화 02-861-8848 값 12,000원

9 772508 498009 31
ISSN 2508-4984

『E美지』 2023 봄호 VOL. 27 정가 12,000원